2004 한중일 직접투자동향 분석

- 한중일 3국의 대내/대외 직접투자의 특징 및 배경 -

2005. 8.

KOTRA

동북아팀

<차 례>

1. 들어가며 ····· 3
■ 최근 세계 FDI 경향 ····· 3
■ 한중일 FDI 경향 분석의 의의 ····· 4

2. 2004 한중일 FDI 흐름과 경향 ····· 7
■ 한국의 대내 FDI 유입 경향 ····· 7
■ 한국의 대외 FDI 진출 경향 ····· 12
■ 중국의 대내 FDI 유입 경향 ····· 15
■ 중국의 대외 FDI 진출 경향 ····· 22
■ 일본의 대내 FDI 유입 경향 ····· 29
■ 일본의 대외 FDI 진출 경향 ····· 34

3. 한중일 무역 및 상호 FDI 흐름과 경향 ····· 40
■ 최근 한중일 무역 흐름의 정리 ····· 40
■ 최근 한중일 무역 흐름의 요인 ····· 41
■ 한중일 상호 FDI의 양상 및 실태 ····· 45
■ 최근 한중일 상호 FDI 투자의 특징 ····· 47
■ 기타 한중일 3국의 FDI 투자환경 제반사항 비교 ····· 51

4. 결언 ·····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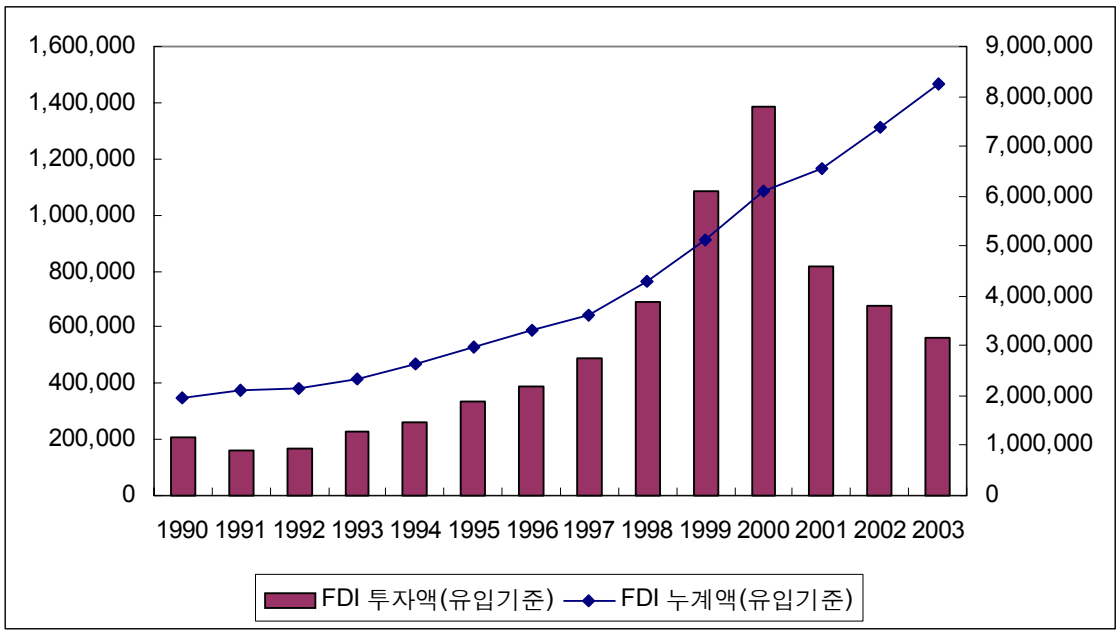
1. 들어가며

■ 최근 세계 FDI 경향

○ 세계의 FDI[1]는 1990년대 초반 약간의 투자감소가 있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왔음. 특히 90년대 후반 급속한 FDI 신장세가 계속되어 2000년도에 13,879억불로 최고조에 이름.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및 세계경제의 둔화, 2002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SARS, 국가간 M&A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FDI는 크게 감소되어 있는 상황

- 하지만, 2004년도 부터는 FDI 투자총액이 서서히 회복,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2]

< 그림1 세계 FDI 년간 투자액 / 누계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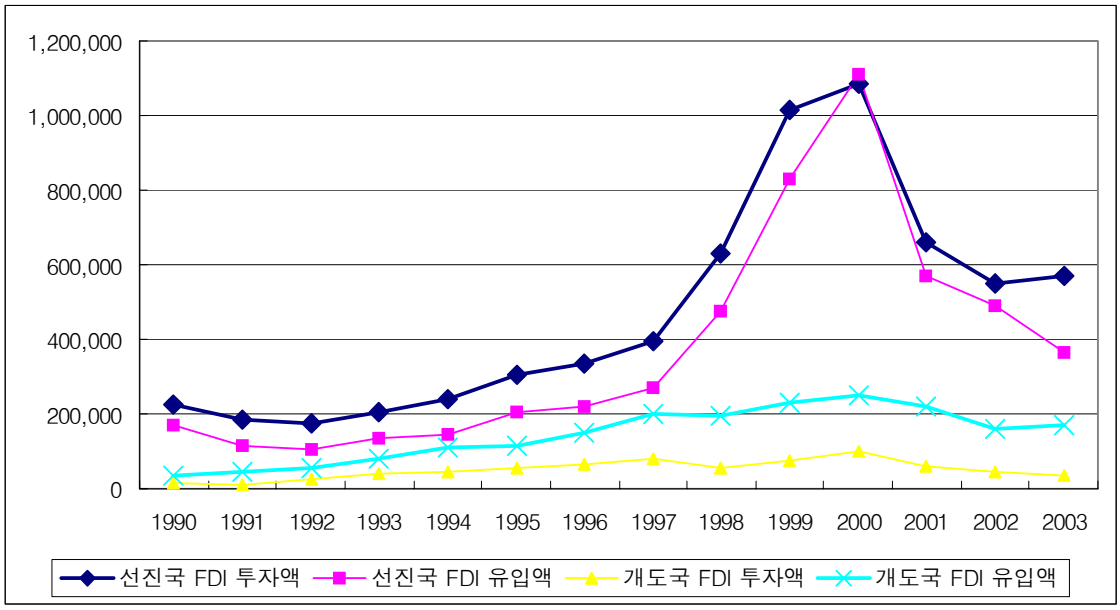
* 단위 : US $ 100만불
* 출처 : UNCTAD

○ 이러한 상황은 뒤에서 살펴볼 한국의 FDI 투자유입 증가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임. 한편, 최근 세계 FDI의 진행은 선진국간의 M&A에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2001년 이후로 개도국으로의 그린필드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1)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칭함, 엄밀히 말하면 한국 입장에서 Inward FDI는 외국인직접투자, Outward FDI는 해외직접투자 라고 칭하고 있다.
2) KOTRA 2004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특징, SERI 2005년 해외 10대 트랜드 등, EIU, UNCTAD 자료 재인용

<그림2 선진국/개도국 FDI 년간 투자액/유입액 >



* 단위 : US $ 100만불
* 출처 : UNCTAD, 선진국(EU, 미, 일,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군), 한국은 기타 국가들과 함께 개도국에 분류(피지, 솔로몬군도 등 조세포탈지역은 제외됨)

○ 한 편, <그림2>를 통해 2000년대의 전세계 FDI의 급작스런 증가와 감소는 선진국의 투자경향이 감소함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부진하나 개도국 유입액은 점차 상승중임이 확인 가능

■ 한중일 FDI 경향 분석의 의의

○ 한중일 3국은 경제의 규모 및 무역의 규모등 여러 면에서 세계에 확고한 자리를 지니고 있음

- 명목GDP에 있어서 한국6,052억불(11위), 중국14,099억불(7위), 일본43,264억불(2위) 등으로 삼국이 세계 10위권, 3국 합계 세계 20%에 달할 정도이며[3],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한국 12위, 중국 4위, 일본 3위 등 상위권을 점함

○ 이러한 한중일 3국의 FDI 투자의 유입 및 진출방향과 관계성은 동북아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살펴볼 때에,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더불어 커다란 경제이슈라고 할 수 있음(한중일 FTA 논의 포함)

3) 참고로 NAFTA는 35%, EU는 25% 정도를 점유함

- 한중일 FTA는 199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은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 경제 협력 대한 필요성이 제기,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합의

- 2000년도부터 한국 KIEP,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가 공동연구 기관으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방향을 연구 착수

- 2002년도 ASEAN+3회의에서 한중일 FTA 타당성 조사론이 나옴

- 한중일FTA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상대적 이익예상[4)]

○ 동아시아 3국의 직접투자의 흐름과 경향을 살피는 것은 향후 무역 및 경제정책의 향방과 함께 주요한 경제이슈로 볼 수 있음

- 중국 :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전세계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로 투자진출까지 나서고 있음

- 한국 : IMF사태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크게 강화하는 한 편, 제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중국으로 빠르게 진출중

- 일본 : 플라자 합의 이후 '동아시아 맹주'자리를 꿈꾸며 동남아시아 직접투자를 늘였다가, 최근은 중국으로 직접투자를 강화 중

4) 2004.10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정재원)에 따르면 한중일 FTA 체결시에는 한국 GDP는 1.29~4.73%, 중국은 0.03~1.05%, 일본은 0.03~0.16%가 성장하게 되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음

<표1 한중일 주요 지표의 세계 순위 >

		단위	한국	순위	중국	순위	일본	순위
경제 규모	명목 GDP(2004)	억달러	6,807	11	16,007	7	46,639	2
	1인당 GNI(2004)	달러	14,122	30	1,217	133	36,522	7
	국토면적(2002)	1000ha	9,926	109	959,805	4	37,789	61
	인구(2005)	백만명	48.2	25	1,315	1	128	10
	경제성장율(03→04)	%	3.2('03)→4.6('04)		1.2('03)→3.9('04)		1.4('03)→2.6('04)	
	환율(달러당,연말)	원	1035.1('04)		8.28→8.11('05)		104.12('04)	
	외환보유고(2004)	백만달러	199,066	4	618,574	2	835,228	1
무역 규모	교역규모(2004)	억달러	4,773	11	11,382	3	9,476	4
	수출(2004)	억달러	2,577	12	5,993	3	5,403	4
	수입(2004)	억달러	2,195	13	5,389	3	4,073	4
	무역흑자(2004)	억달러	382	19	604	10	1330	2
산업 규모 · 경쟁 력	전자제품 생산액(2004)	백만불	90,285	4	177,130	3	197,807	2
	선박수주량(2003)	1000CGT	18,810	1	6,107	3	12,335	2
	선박건조량(2004)	1000CGT	8,319	1	3,090	3	7,971	2
	자동차생산(2004)	1000대	3,469	6	5,071	4	10,512	2
	조강생산량(2004)	천톤	47,521	5	272,456	1	112,716	2
	에틸렌생산능력(2003)	백만톤	5.72	5	5.87	4	7.22	2
	합섬생산능력(2004)	천톤	2,927	4	13,546	1	1,562	5
	반도체매출액(2004)	억불	삼성159	2	n.a	-	도시바90	6
	DRAM매출액(04.3/4)	백만불	삼성 1,999	1	n.a	-	n.a	-
	플래시메모리(04.3/4)	백만불	삼성990	1	n.a	-	도시바582	-
	TFT-LCD출하(2004)	만대	삼성 3,027	1	n.a	-	샤프 766	-
	휴대폰판매(04.1~3/4)	만대	삼성 6,097	3	n.a	-	소니에릭슨 2,947	5
	Fortune 500대기업(03)	개	11	10	15	6	82	2
연구 개발	연구개발투자(2002)	억달러	138	7	156	6	1,279	2
	연구개발인력(2002)	천FTE	190	7	1,035	1	892	3
	과학기술논문발표(03)	천편	18.6	14	40.6	6	75.1	2
	내국인특허등록(99~01평균)	천건	29.4	3	5.0	8	118.5	1
	해외취득특허(2001)	천건	7.2	11	0.3	27	81.1	2
서 비 스	교역규모(2003)	억달러	703	14	1,013	9	1,809	5
	수출(2003)	억달러	313	17	464	9	706	7
	수입(2003)	억달러	390	14	549	8	1,103	4
	무역적자(2003)	억달러	△76	7	△85	5	△396	2
	1,000대은행(2003)	개	12	18	16	12	113	2
	500대대학수(2004)	개	8	12	8	12	35	4
	의료서비스의 질(03)	지수	51.5	31	36.5	45	76.8	17

출처 : KOTRA 시카고 무역관 김정동 과장 내부 정리 자료, KOTRA 동북아팀 재정리

2. 한중일 FDI 흐름과 경향

■ 한국의 대내 FDI 유입 경향

○ 한국의 FDI유치는 크게 보아 3가지 단계로 변천을 구분할 수가 있음

<표2 한국 투자유치 단계와 특징>

	시 기	특 징	투자누적액
1단계 외자도입정책기	60년 외자도입촉진법 시행 ~ 84년 외자도입법 개정까지	외국인 경영권행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 차관도입에 주력	1,730
2단계 초기산업정책기	84년 외자도입법 개정 ~ 97년 외환위기까지	개방화를 도입, 계획적 개방, IMF 사태 전까지 지속됨	11,457
3단계 복합경제정책기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03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발족까지	외환위기 이후, 외환안정을 위해 투자유치에 힘씀, M&A가 활발해지는등 FDI가 크게 증가	43,713
4단계 전략적외자유치	03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발족 ~	참여정부 이후 전략적 외자유치 개념으로 투자정책을 개선함	~~~~~

* 단위 : US $ 100만불
* 출처 : 임성훈, '동북아시대 전략적 외국인투자 마케팅'

○ 한국의 FDI 유치는 위에서 알 수 있듯,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인식과 성격, 추진방향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됨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유입에 부정적으로, 차관 위주의 자금조달을 선호해 왔음

- 97년경의 외환위기를 맞게 되어 정부, 민간 등 국가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한 편, 외환보유와 부진한 국내투자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삼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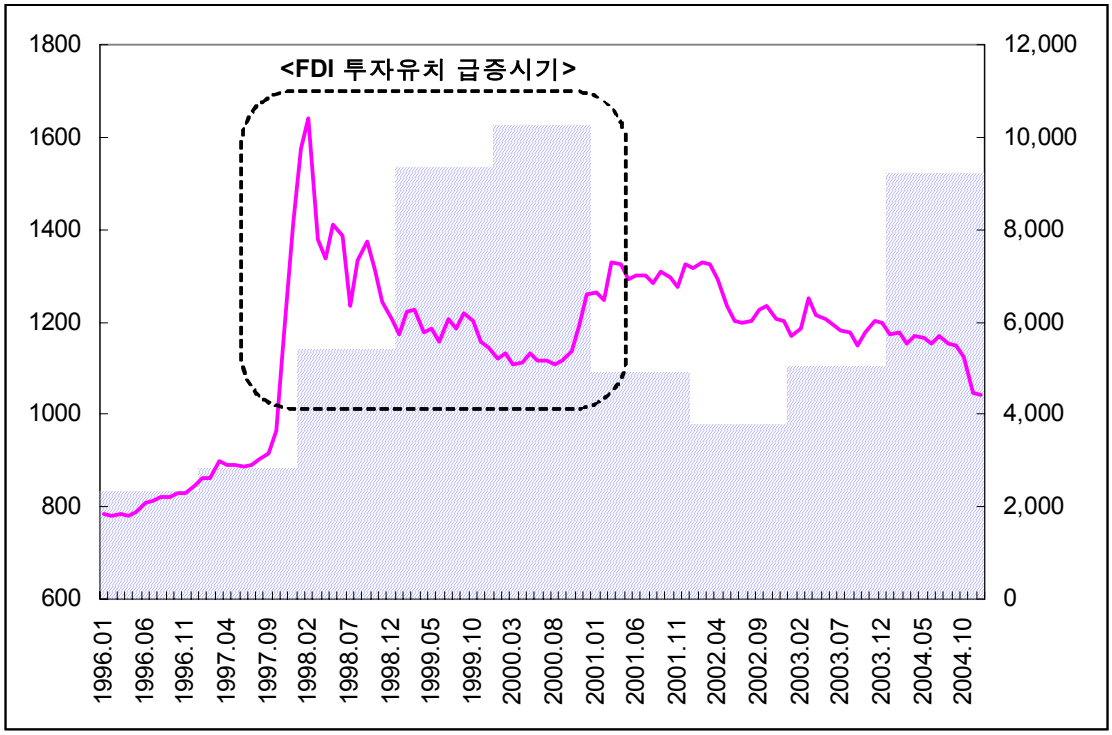
- 그러나 많은 우량기업들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된 점도 있음(원화가치의 급속한 하락,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에 따른 우량기업들의 해외 매각 러시 등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신고기준으로 98년 88억불, 99년과 2000년 연속 150억불을 초과하는 등 과거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FDI 총액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증가)

- 이후 200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후반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는 흐름

○ 결국 이러한 한국의 FDI 유치는 의도했던 바 대로 수출의 증대로 인한 외화 획득과 동시에 외환위기극복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짐

- <표3>를 참고하면, 98년에서 2000년 사이의 FDI 유치가 급증한 시기에 환율 또한 하락, 안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3 환율 / 한국FDI유치액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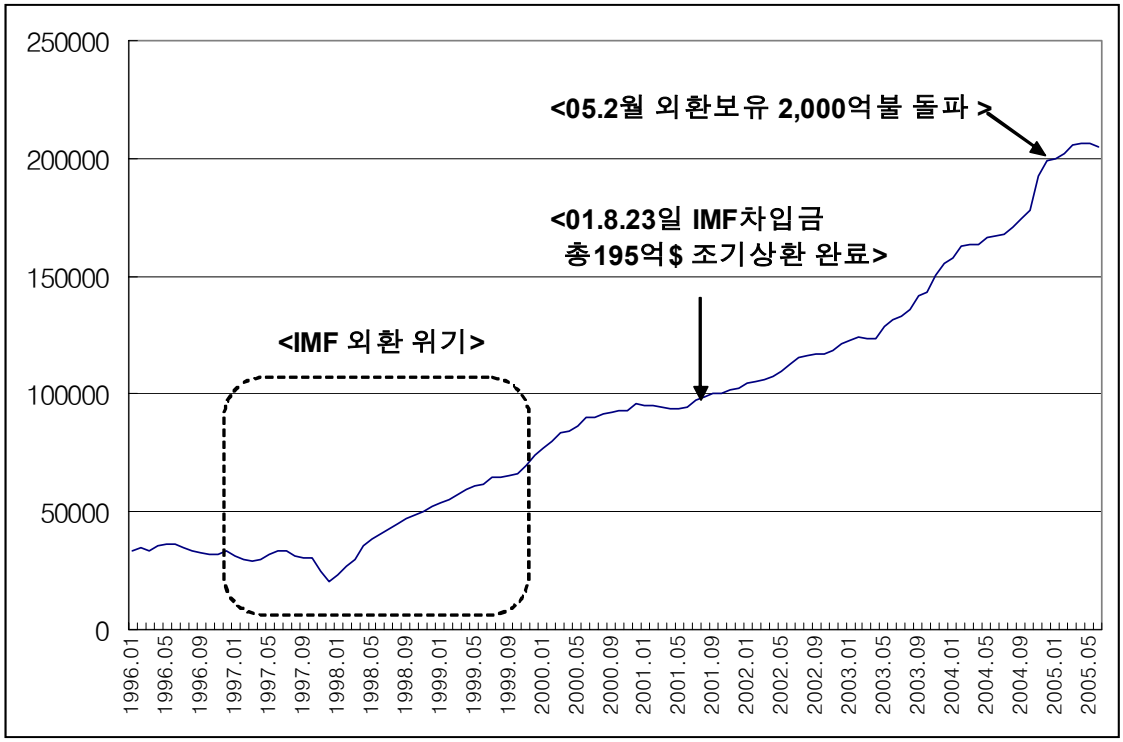
* 단위 : 환율 - 원 / 1US$, 투자유치액 - 100만 US$
* 출처 : 통계청, 산업자원부

○ 한국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도 97년 12월 204억불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외환준비율은 05년 6월 현재 2,049억불로 10배에 달할 만큼 증가했으며, IMF로 부터의 구제금융 또한 1997년 12월 받은 195억불을 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상환, 2001년 8월 23일 완전 상환하기에 이름

- 이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구제금융 상환예정일인 2004년 5월에 비해 3년가량 빠른 것이며, IMF체제를 3년 8개월만에 졸업하게 된 것

○ 현재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4위 외환보유고의 국가임(日 : 8,400억불, 中 : 7,010억불, 臺 : 3,500억불선 - 05년상반기까지)

<표4 한국 외환보유고 변화 추이>



* 단위 : 100만 US$ / (특별인출권, 국제통화기금 포지션, 외환, 금 등을 합계한 금액)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 한 편, 한국의 FDI유치 정책은 2003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발족과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정책 최상위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지방과 기관별로 다원화 되어있던 투자유치 기관을 일원화 한 Invest KOREA의 출범과 외국인 CEO의 도입, PM제도의 활용등 과거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5)]

○ 구체적으로는 투자유치 주력산업, 육성산업, 잠재산업등을 구분 유치
- 주력산업 : 자동차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 육성산업 : 물류, 사회간접자본(SOC), 관광
- 잠재산업 : 바이오기술, R&D, IT 등

○ 또한, 실질적으로 관심 투자가를 실제 투자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전관리에서부터, 사후관리(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애로사항 개선) 까지의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는 등 노력을 경주

5) 1. PM(Project Manager)제도 - PM이 대상유치기업에 밀착지원서비스를 행함, 현재 64명이 112개 프로젝트 투입중
2. 원스톱 서비스 - 환경부, 노동부, 국세청, 법무부 등 14개 중앙부처, 9개 지자체의 공무원이 상담/처리서비스 제공
3. 외국인 CEO - Invest KOREA는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기관의 취지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인사로서 2003년 정부 공기업중 최초로 알란 팀블릭씨를 초대 단장으로 선출함

○ 한국의 투자유치는 03년 이후 도착액/신고액 기준이 대폭 상승(02년 40.6% → 03년 76.8%, 04년 72.2%)하는 등, 내실있는 투자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5 한국 FDI 금액 도착/신고 비중 변화 추이>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고기준	금액	8,853	15,542	15,217	11,292	9,103	6,469	12,785
	건수	1,401	2,104	4,271	3,418	2,441	2,597	3,102
도착기준	금액	5,289	10,806	10,227	4,880	3,748	5,024	9,228
	건수	1,171	1,531	3,340	2,620	1,863	2,144	2563
비 율 (도착/신고)	금액비	59.6%	69.5%	66.9%	43.2%	40.6%	76.8%	72.2%

* 단위 : 100만 US$ / 비율 : %
* 출처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액 통계

○ 04년도 한국 FDI유치는 신고기준으로 보아 2000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던 외국인투자유치가 다시 한 번 증가세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할 만 함

- 하지만, 2005년도 상반기까지의 투자유치는 4,631백만불로서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세[6)]

○ 내용면에서는 M&A형태가42.9%(5,478백만불,신고기준), Greenfield형(신규공장증설형)이 49%(6,262백만불)를 차지하여, 01년에서 03년까지의 Greenfield형 투자가 25%정도에 그쳤던것에 비하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신규투자유입이 증액투자유입에 비해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신규투자유입는 03년 대비 153% 증가한 6,210백만불(신고기준)임에 비해 증액투자유입은 41% 증가한 5,529백만불에 그침에서도 내용이 보임

- 이는 한국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요인이 생겨 있음으로도 볼 수 있음

6) 이는 달라진 투자관련 세제/인센티브와도 유관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 2005년 투자인센티브를 소폭 낮추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자시기를 2004년으로 앞당기게 된 외투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중국의 경우에 위안화 평가절상가능성을 우려하여 투자시기를 조금씩 앞당기게 되었을 가능성과 비슷한 투자시기 조절의 외부적 요인으로 보임

○ 한 편, 투자유치대상기업의 국적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4,717백만불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편, 일본이 뒤를 이어 2,257백만불, 중국은 1,164백만불을 투자중임. 그 밖에 EU국가들이 총계 30억불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7)]

○ 투자유입 규모 면에서 보면 1억불 이상의 대형 투자가 74억불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 1억불~1천만불이 36억불, 1천만불~1백만불의 투자가 14억불 정도를 차지함

- 이상의 1억불 이상의 대형투자유입 중에는 Citygroup의 한미은행에 대한 28억불, GE Capital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3.7억불규모의 투자등의 금융권 투자, 이외에도 ebay, 소니 등의 대형투자유입이 있음

<표6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유입 현황>

산업별구성		투자국별 구성		투자규모별 구성		투자형태별 구성		투자성격별 구성	
제조업	6,211 (48.6)	미국	4,275 (37.0)	1억불 이상	7,438 (58.2)	신규	6,210 (48.6)	M&A	5,478 (42.9)
(부품소재)	4,282 (33.5)	일본	2,249 (17.6)	1천만불 ~1억불	3,606 (28.2)	증액	5,529 (43.3)	GreenField	6,262 (49.0)
서비스업	6,126 (48.0)	EU	3,005 (23.5)	1백만불 ~1천만불	1,409 (11.0)	장기차관	1,031 (8.1)	장기차관	1,031 (8.1)
전기·가스·수도·건설	433 (3.4)	기타	2,791 (21.9)	1백만불 미만	317 (2.5)				
전체	12,770	전체	12,770	전체	12,770	전체	12,770	전체	12,770

* 출처 : 산업자원부, 단위 : 100만 달러, %

○ UNCTAD에 의하면 한국의 FDI 유치성과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음[8)]

- 2001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의 global FDI유치 성과 중에서 0.314% 밖에 차지하지 못함으로서 전체 140개국 중 120등의 유치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싱가폴의 6위, 중국의 37위 등과 비교할 때에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9)]

- 한국이 북핵문제 등의 특정한 Countryrisk를 감소시키는 등의 노력이 수반된다면, 더 좋은 FDI유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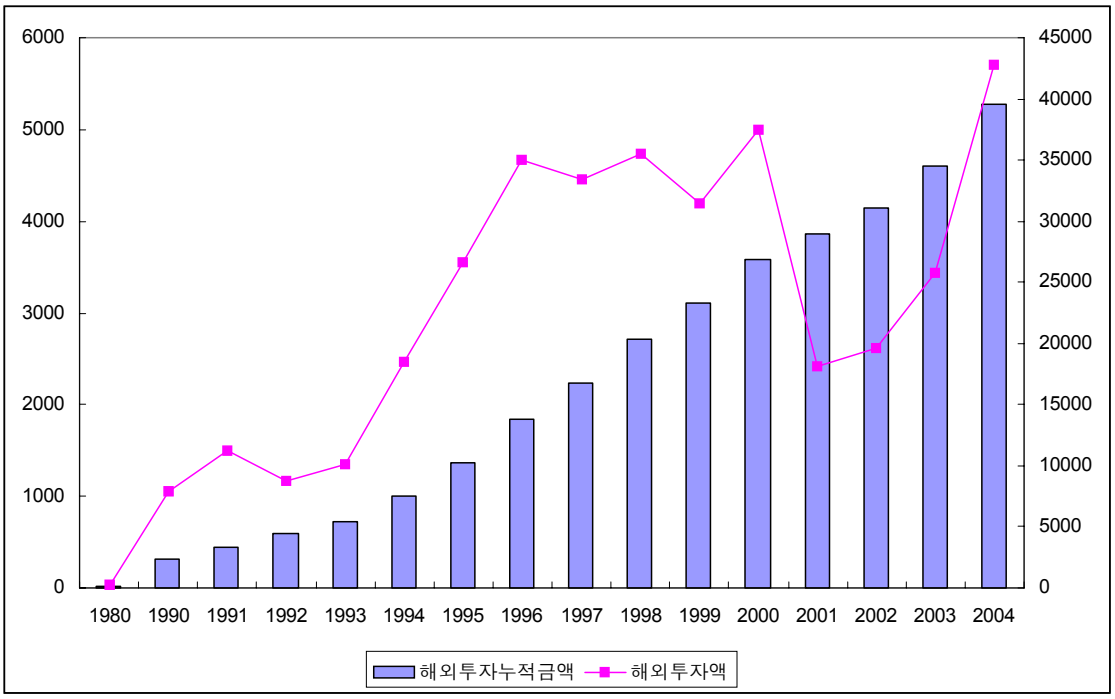
7) 일본, 중국의 대한투자에 대해서는 3장, 한중일 상호 FDI 경향과 흐름에서 살피기로 함
8) 한국은 UNCTAD가 실시, 공개하고 있는 FDI 투자유치 성과와 잠재력 매트릭스에서 고 FDI 잠재력 - 저 FDI 성과 군에 조사가 공개되고 있는 1988년 이후 계속하여 포함되어 있음
9) Koreatimes 05.4.17

■ 한국의 대외 FDI 진출 경향

○ 2004년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진출은 총신고 기준 3,904건, 79.4억 달러, 총투자기준 3,762건, 57.1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총투자진출은 전년대비 건수가 34.8%, 금액이 50.5% 증가함

○ 전체적으로 보아 1980년까지의 한국 FDI투자진출이 1.3억불, 90년 23억불으로 성장하였고 90년대에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년간 투자액이 4억불선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하지만 외환위기인 1997년 이후는 년간 투자진출액이 정체되어 있다가 2002년부터 다시 증가세에 들어서고 있음 '04년말 현재 투자신고 총 누계액은 395.7억으로 2004년 한국의GDP(6,801억불) 대비 5.8%에 이름

<그림3 한국 해외투자진출액 / 누계액 추이>



* 단위 : 100만 US$
* 출처 : 2003년까지 UNCTAD, 2004년수치는 재정경제부

○ 해외투자진출의 급격증가세는 미국, 중국의 고성장등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호조를 보이고 국내 경기는 침체에 있음등에 원인[10]

○ 한 편,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진출동향은 양극화 현상과 아시아 집중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음

10) 수출입은행 05.1 '2004 해외직접투자동향' 분석

<표7 기업 규모별 해외투자 동향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3	100	28.2	1,849	25.4	1,134	4.5
(구성비)	(3.2)	(48.6)	(60.0)	(43.7)	(36.8)	(7.7)
'04	177	42.5	1,732	29.9	1,995	7.0
(구성비	(4.5)	(53.5)	(44.4)	(37.7)	(51.1)	(8.8)

* 단위 : 억불, %, 건

○ 양극화현상 : 대기업은 2004년 해외총투자건수의 4.5%에 불과한 117건을 통하여 전체 투자액 53.5%에 해당하는 42.5억불을 투자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신고기준) 2004년의 투자진출증가는 이와 같은 대기업의 투자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큼

<표8 투자규모별 해외투자진출 동향 >

구분	100만불이하		500만불이하		1,000만불이하		5,000만불이하		5,000만불초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3	2,635	8.8	350	11.2	60	6.7	31	12.2	7	19.1
(구성비)	(85.5)	(15.2)	(11.4)	(19.3)	(1.9)	(11.6)	(1.0)	(21.0)	(0.2)	(32.9)
'04	3,406	11.1	381	12.9	63	8.3	45	18.0	9	29.0
(구성비)	(87.2)	(14.0)	(9.8)	(16.3)	(1.6)	(10.5)	(1.2)	(22.7)	(0.2)	(36.5)

* 단위 : 억불, %, 건

○ 또한 양극화 현상을 대변하는 것은 영세한 규모의 개인투자 및 기타투자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임(03년 대비 건수 대비 75%, 금액대비 55% 증가 - 1,995건 7억불 규모)[11]

- 이는 해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짐[12]
- 앞으로 해외투자가 더욱 활발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반면, 해외투자진출의 영세성과 실패가능성, 부작용[13]등을 높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11) 특히 중국의 경우 2004년도 한건당 평균 투자액이 1백만불 정도에 그쳐 대일본평균투자액 2.7백만불에 비해 투자의 규모 및 영세성이 두드러짐

12) 재경부는 1999년 4월부로 외환거래 1단계 자유화를 통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1월부로 개인의 자본유출거래 등 기타잔존 외환자본거래 자유화를 실시한 바 있음

13) 개인의 자본유출의 자유화는 조세포탈, 자본도피, 환투기등의 우려 또한 상존함. 금융연구원 박해식의원의 '해외시장의 입장에서 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01년 2단계 자유화 이후, 2000년에서 2004년으로 오면서 개인투자는 전체 3%에서 12.9%로 증가, 부문에서 부동산투자는 2%에서 3.5%로 확대중임

○ 아시아 집중현상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진출은 지역으로는 아시아(특히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측면이 강함
- 제조업이 중심인 해외직접투자진출의 성격으로 보아 저임금 등을 활용한 투자가 활발한 때문으로 보아짐[14)]

<표9 한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신고액 추이>

	2001	2002	2003	2004(구성비)
전체	63.5	63.0	58.1	79.4(100%)
아시아	19.1	31.1	42.4	50.9(64.1%)
중국	10.0	20.8	27.5	36.3(45.8%)
일본	1.0	0.9	0.5	3.3(4.1%)
베트남	1.0	3.8	7.2	3.5(4.4%)
미국	18.4	14.2	7.6	14.2(17.9%)
EU	22.0	11.0	2.3	7.1(9.0%)

* 단위 : 억불, 신고기준

○ 한 편, 한국의 해외투자진출은 이제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영, 또한 과다한 외환보유고 문제등을 고려할 때에 정부차원에서 활성화와 지원이 논의되고 있음

- 05.6.16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05.7.1 외환거래규정 개정 등

○ 재경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 투자한도를 100만불에서 300만불로 올리고, 법인의 비금융기관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를 폐지하였으며, 거주자의 부동산취득 규제한도 또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기존 30만불 이내에서 50만불 이내의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의 외화의 국내 유입촉진, 외화의 국외유출방지라는 정책기조를 개선하여 외환 수급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나아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태환성(화폐등이 거래교환될 수 있는 성질) 확보를 위해서도 활성화방안은 필요한 조건임[15)]

14) 2004년도 해외투자 업종별 구성비

2004년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광업/ 기타
해외투자비중(%)	62.9%	14.9%	9.2%	3.5%	9.5%

15) 05.5.4 외환시장의 입장에서 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 박해식 금융연구원

■ 중국의 대내 FDI 유입 경향

○ 중국의 FDI유치는 크게 보아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음

<표10 중국 투자유치 단계와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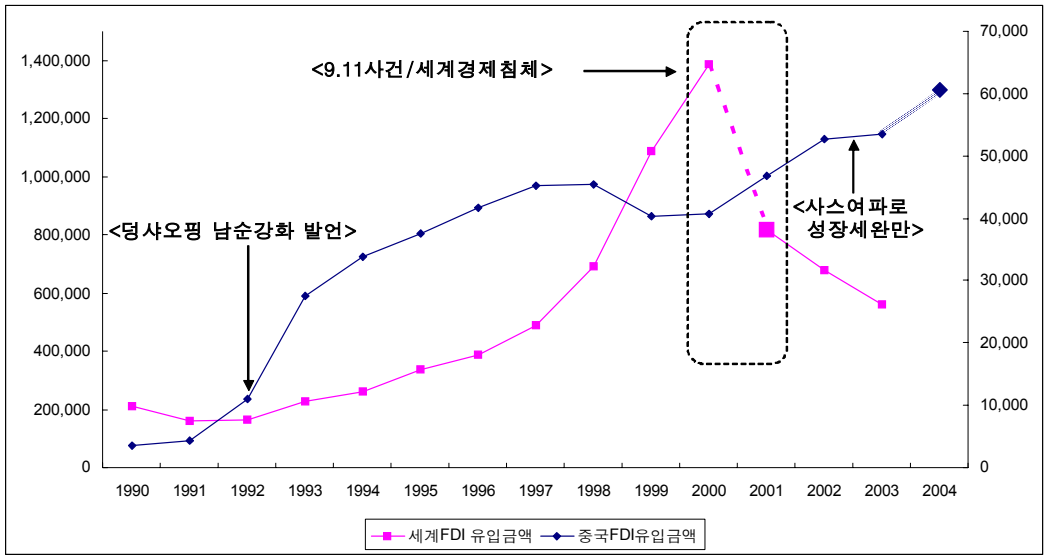
단계	시기	특징	투자누적액
1단계	1979년 ~ 1991년	대외개방 추진, 경제특구 설치 등 FDI 법적 제도적 정비 강화, 홍콩등을 경유한 투자 주종	25,060
2단계	1992년 ~ 2000년	대외개방 확대, 투자유치의 활발화,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등의 투자, 세계투자등의 급증세	348,346
3단계	2001년 ~ 현재	WTO 가입, 북경올림픽 유치 등 완전한 시장개방을 향한 흐름, 한국 등의 투자 급증세	501,471(03년)

* 단위 : US $ 100만불
* 출처 : 산업연구원 2004.10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등

○ 1단계 1979년 개혁개방에 들어가게 된 이후, 2단계에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16]를 계기로 개혁개방의 전기를 맞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개혁개방과 함께 투자유치 또한 급증세를 맞게 됨, 이후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아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임

○ 3단계에 들어 중국의 FDI유치는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전 세계 FDI와는 달리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4 세계 / 중국의 FDI유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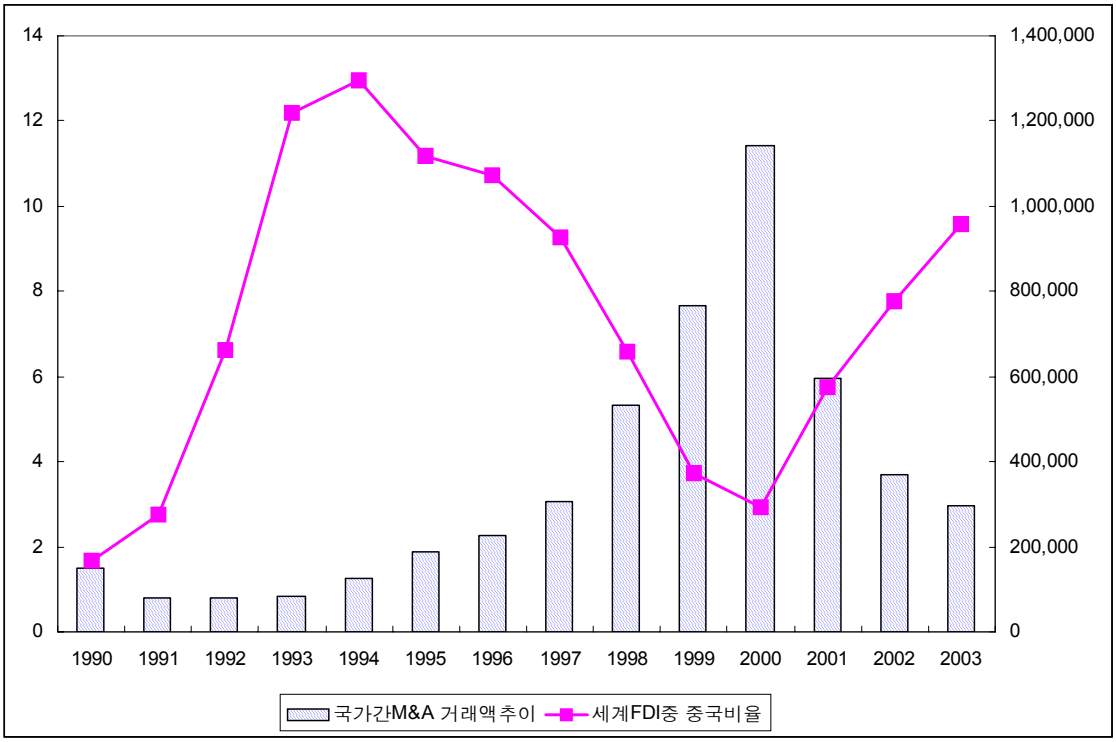
* 출처 : UNCTAD, 중국FDI 2004년도 수치는 상무부 도착액 기준임
* 단위 : 백만불

16) 덩샤오핑이 1992년 1월18일~2월21일간 심천, 주해, 무창 등 중국 남부주요지역을 돌며 행한 강연으로 여기에서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의 중요성과 개혁개방의 확대, 시장경제의 도입 필요성등을 강조하게 됨

○ 이러한 중국 FDI 유입의 증가는 선진국 기업들 간의 M&A가 줄어드는 한 편, 중국등 개발도상국가로의 투자가 늘어드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임

- 국가간 M&A의 대부분은 선진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의 감소가 2001년 이후 세계 FDI 감소세를 이루고 있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17)]

<그림5 전 세계 FDI 중 중국의 점유율 / 국가간 M&A 거래액 추이>



* 출처 : UNCTAD
* 단위 : %, 백만불

○ 2004년 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은 승인 기준으로 4만 3,664건, 계약금액 1,534억 79백만달러, 실제 투자가 606억 3천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6.3%, 33.4%, 13.3% 증가함

17) 본 보고서 1장의 표2 선진국/개도국 FDI 년간 투자액/유입액 부분 등을 참조

<표11 전 세계 FDI 및 중국의 FDI유입 현황 비교>

연도	전 세계 FDI 금액	증감율	중국의 FDI	증감율	세계 FDI 중 중국의 점유율
1991	1,981	-	43.7	25.2	2.2
1992	2,015	1.7	110.1	152.1	5.5
1993	2,391	18.7	275.2	22.7	13.4
1994	2,511	5.0	337.67	22.7	13.5
1995	3,387	34.9	375.21	11.1	11.1
1996	3,590	6.0	417.26	11.2	11.6
1997	4,640	29.2	452.27	8.4	9.7
1998	6,909	48.9	454.63	0.5	6.6
1999	10,867	57.3	403.19	-11.3	3.7
2000	13,879	27.7	407.15	1.0	2.9
2001	8,176	-41.1	468.78	15.1	5.7
2002	6,788	-17.0	527.43	12.5	7.8
2003	5,596	-17.6	535.05	1.4	9.6
2004	-	-	606.30	13.3	-

* 단위 : 억 불, % / 출처 상동

○ 한 편, 이러한 대중 FDI유입의 증가에는 위엔화 평가절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기적인 면에서 증폭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18)]

- 위엔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은 2002년 상반기부터 이야기되었으며, 2003년부터 미, 일, EU를 중심으로 위엔화 평가절상 요구 있었음
- 이러한 근미래에의 위엔화의 평가절상 기대심리는 중국에의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존재하였음[19)]

○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투자경향을 찾아보면, 중국은 중화권, 한국, 일본, 미국등의 투자유입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12 국가별 중국 대내FDI 투자 유입 현황>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가	투자액	국가	투자액	국가	투자액	국가	투자액	국가	투자액
	전체	407.72	전체	468.78	전체	527.43	전체	535.05	전체	606
1	홍콩	155.0	홍콩	167.17	홍콩	178.61	홍콩	177.00	홍콩	195
2	미국	43.83	버진 군도	50	버진 군도	61.17	버진 제도	57.77	버진 군도	67
3	버진 군도	38.32	미국	44.33	미국	54.24	일본	50.54	**한국**	**62**
4	일본	29.15	일본	43.48	일본	41.90	**한국**	**44.89**	일본	55
5	대만	22.96	대만	29.8	대만	39.71	미국	41.99	미국	39
6	**한국**	**14.89**	**한국**	**21.52**	**한국**	**27.21**	대만	33.77	대만	31

* 단위 : 억불 / 출처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및 상무부 통계(2004) 등

18) 중국 인민은행은 05.7.21부로 1달러당 위엔화 환율을 기존 8.28위엔에서 8.11위엔으로 평가절상을 단행함

19) KOTRA 05.1월 '위엔화 평가절상, 초읽기에 들어갔나'에 따르면 평가절상기대심리에 의한 2004년 증가한 외환보유액 2000억불 중 핫머니가 950억불에 달한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중-미간 금리차에 의한 투자심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음

○ 각 국가별 대중투자특징을 본다면 다음과 같음

-홍콩 : 홍콩은 80~90년대에 걸쳐서 중국 투자의 관문역할을 해 왔음[20], 2000년대에도 홍콩은 대중투자액을 가장 많이 실현하고 있으나 전체 FDI중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8.0%	35.7%	33.8%	33.1%	32.2%

- 버진군도 : 케이만 군도 등과 함께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성격이 짙음, 실제로 이 지역 투자액 대부분이 대만의 투자액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존재함.[21] 2000년대에도 평균 10% 가량의 대중 투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 한국의 대중투자는 현재진행형임. 외환위기 극복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그치지 않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4년 현재 홍콩, 버진군도 등 중화권 투자를 제외한 1위 투자국[22]

- 미국 : 미국의 대중투자는 2000년도 44억불(대중투자의 10.8%)로 2위의 투자국이었으나 투자액이 점차 감소하여 2004년도에는 39억불(대중투자 6.4%)로 줄어드는 등, 세계 FDI 투자경향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짐

- 일본 : 일본의 대중투자는 95년을 정점으로 90년대에 많은 투자액을 보였으나, 동아시아 외환위기등에 기인하여 위축되었음(95년도 44억불→99년 7억불),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중국 내수진입기대 등으로 투자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대만 : 대만은 큰 변동 없이 20~30억불 규모의 투자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 상위 5위권 내에 있음, 그러나 버진 군도, 케이만 군도에서의 외국인 대중투자의 상당부분이 대만기업의 투자로 추정되어 실제 투자액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20) 세계 기업들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위험을 분산하고 다소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었음, 그러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우대정책의 상대적인 감소등으로 최근은 굳이 홍콩을 경유할 필요는 없음

21) JETRO 2002.3월 중국경제등

22) 한국, 일본의 대중투자 양상은 3장에서 다루기로 함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총 투자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그 외에 서비스 업종 등이 서서히 투자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

<표13 2002~2003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입 업종별 현황>

업 종	2001년		2002년		2003년	
	투자 금액	비중	투자 금액	비중	투자 금액	비중
총 계	468.78	100	527.43	100	535.04	100
제조업	**309.07**	**65.93**	**368.00**	**69.77**	**374.67**	**70.02**
농,임.목,어업	8.99	1.92	10.28	1.95	10.01	1.87
채굴업	8.11	1.73	5.81	1.10	3.36	0.63
전력,연료 및 용수 생산 공급	22.73	4.85	13.75	2.61	12.95	2.42
건축업	8.07	1.72	7.09	1.34	6.12	1.14
교통운수,창고, 우편업	9.09	1.94	9.13	1.73	8.67	1.62
도소매업, 호텔업	11.69	2.49	9.33	1.77	15.99	2.98
금융업, 보험업	0.35	0.08	1.07	0.20	2.32	0.43
부동산업	51.37	10.96	56.63	10.74	52.36	9.79
주민서비스・기타서비스업	25.95	5.54	29.43	5.58	31.61	5.91
위생,사회보장, 사회복리업	1.19	0.25	1.28	0.24	1.27	0.23
교육, 문화예술	0.36	0.08	0.38	0.07	0.58	0.11
과학연구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1.20	0.26	1.98	0.37	2.76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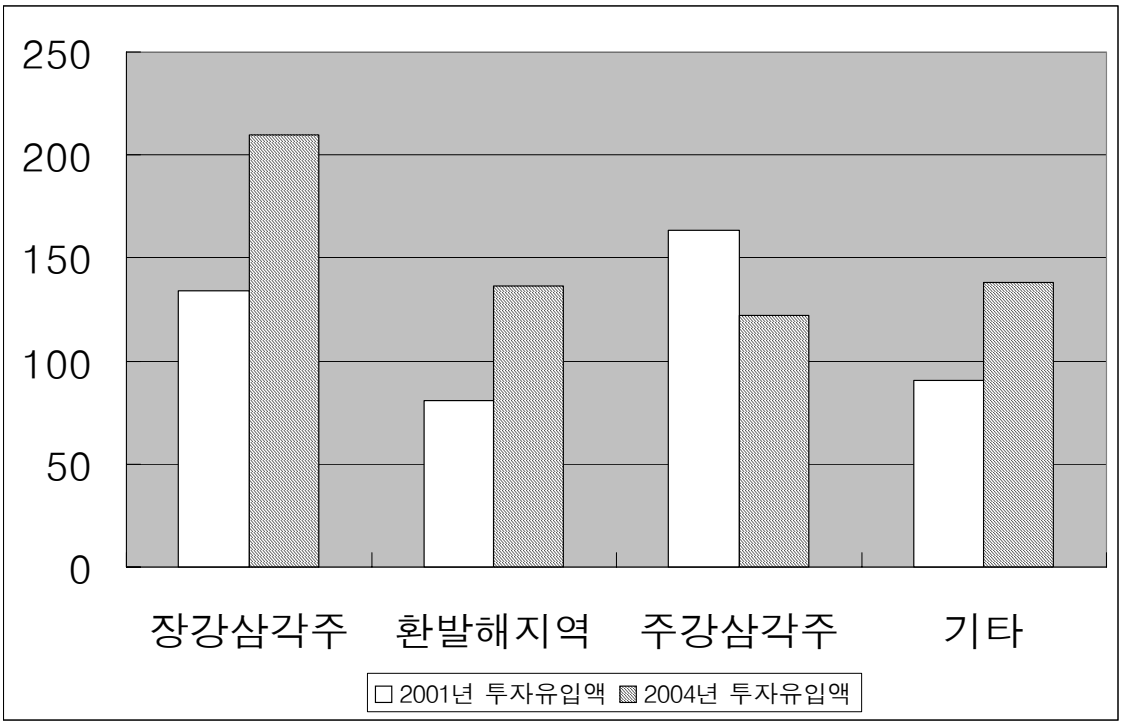
* 단위 : 억위앤, %
* 자료원 : 중국대외무역경제연감(2002/2003년판)

○ 이는 아직까지 중국으로의 투자유입은 생산코스트의 절감등을 감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이 많다는 점을 역설하는 결과로 보여짐

○ 또한 WTO 가입 후 중국의 제조업, 금융, 서비스부문의 대외업종 개방의 확대[23]에 따른 결과로, 향후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유입이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됨

23) 2002년 4월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에 따르면 장려/허가/제한 업종에 있어서 투자장려업종이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됐으며, 투자제한업종은 기존 112개에서 75개로 감소됐음 그러나 2004년 11월 재개정된 동목록에서는 장려업종이 5개 줄어드는 등 향후 중국정보는 선택적인 입장을 강화할 듯 보임- KOTRA 2005년 1월 '중국FDI 확대와 드러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 정도숙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도입에 초점을 두고, 외자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한 편 서비스업의 개방속도도 WTO 완전가입요건 달성을 맞아 가속화 해 나가는 한 편, 몇몇 과잉투자업종은 장려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조정하는 등의 움직임'

<그림6 2001/2004 중국 권역별 FDI 투자유입 현황 >



* 단위 : 억 위앤 / 자료원 : 중국대외무역경제연감(2002/2003년판), 중국통계적요(2004년판)
* 주 - 장강삼각주 :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쟝(浙江)
환발해지역 :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주강삼각주 : 광둥(廣東),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등으로 통칭

○ 한 편, 중국의 지역별 투자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쟝(浙江) 등 장강삼각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총 외국인 직접투자의 35%를 차지하여 이 지역이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함[24]

- 이는 WTO 가입 직전 2001년과 비교할 때 2003년에는 6%p가 증가한 수치로 WTO 가입 후 이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을 나타냄[25]

○ 다음으로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등 환발해지역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중 22.5%를 차지하고 있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줌

○ 이에 비해 중국의 개혁 개방초기부터 외자계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광둥(廣東),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등 주강삼각주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의 비중은 2001년에 29.74%였던 것이 2003년에는 19.87%로 무릇 9%p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24) 동 부분은 KOTRA 2005년 1월 '중국FDI 확대와 드러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 정도숙 부분을 재정리 인용함
25) 중국은 WTO 가입 전후 '대외업종 개방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각종 법령의 제·개정 등 법제화, '내수시장 진입환경 용이'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킨 바 있음

○ 이러한 지역투자유입경향의 변화는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국의 내수시장 잠재력이 큰 장강삼각주, 환발해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진 반면, 단순 임가공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동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 명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14 2001/2004 중국 권역별 FDI 투자유입 현황>

성시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총계	468.77	100	527.43	100	535.04	100	606.29	100
상하이시	**42.92**	**9.15**	**42.72**	**8.10**	**54.68**	**10.22**	**63.10**	**10.40**
장쑤성	**69.15**	**14.75**	**101.89**	**19.32**	**105.64**	**19.74**	**89.48**	**14.76**
저쟝성	**22.11**	**4.72**	**30.76**	**5.83**	**49.81**	**9.31**	**57.32**	**9.45**
베이징시	**17.68**	**3.77**	**17.25**	**3.27**	**21.91**	**4.10**	**25.59**	**4.22**
텐진시	**21.33**	**4.55**	**15.82**	**3.00**	**15.34**	**2.87**	**17.20**	**2.84**
허베이성	**6.69**	**1.43**	**7.83**	**1.48**	**9.64**	**1.80**	**6.99**	**1.15**
산둥성	**35.20**	**7.51**	**47.34**	**8.98**	**60.16**	**11.24**	**86.64**	**14.3**
광둥성	**119.32**	**25.45**	**113.34**	**21.49**	**78.23**	**14.62**	**100.11**	**16.5**
푸젠성	**39.18**	**8.36**	**38.38**	**7.28**	**25.99**	**4.86**	**19.23**	**3.17**
하이난성	**4.66**	**1.00**	**5.12**	**0.97**	**4.21**	**0.79**	**1.19**	**0.20**
산시성	2.34	0.50	2.12	0.40	2.13	0.40	0.90	0.15
내이멍구	1.07	0.23	1.77	0.34	0.89	0.17	3.42	0.56
랴오닝성	25.16	5.37	34.12	6.47	28.24	5.28	54.06	8.92
지린성	3.37	0.72	2.45	0.46	1.90	0.36	1.93	0.32
헤이롱쟝	3.41	0.73	3.55	0.67	3.22	0.60	3.39	0.56
안후이성	3.37	0.72	3.84	0.73	3.67	0.69	4.28	0.71
쟝시성	3.95	0.84	10.82	2.05	16.12	3.01	20.44	3.37
허난성	4.57	0.98	4.05	0.77	5.39	1.10	4.22	0.67
후베이성	11.88	2.54	14.27	2.70	15.69	2.93	17.44	2.88
후난성	8.10	1.73	9.00	1.71	10.18	1.90	14.18	2.34
광시자치구	3.84	0.82	4.17	0.79	21.29	3.98	2.95	0.49
충칭시	2.56	0.55	1.96	0.37	2.60	0.49	2.51	0.41
쓰촨성	5.81	1.24	5.56	1.05	4.12	0.77	3.65	0.60
구이저우성	0.28	0.06	0.38	0.07	0.45	0.08	0.62	0.10
윈난성	0.64	0.14	1.16	0.21	0.83	0.16	1.41	0.23
샨시성	3.51	0.75	3.60	0.68	3.19	0.62	1.41	0.23
간쑤성	0.74	0.16	0.61	0.12	0.23	0.04	0.35	0.06
칭하이성	0.36	0.08	0.47	0.09	0.25	0.05	-	-
닝샤자치구	0.16	0.04	0.22	0.04	0.17	0.03	0.67	0.11
신쟝자치구	0.20	0.04	0.19	0.04	0.15	.03	0.39	0.06
시장자치구	-	-	-	-	-	-	-	-

* 단위 : 억 위앤 / 자료원 : 중국대외무역경제연감(2002/2003년판), 중국통계적요(2004년판)
* 주 - 장강삼각주 :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쟝(浙江)
환발해지역 :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주강삼각주 : 광둥(廣東),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등으로 통칭 (각각 음영표시지역)

○ 한 편, 2005년도 8월 1일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2005년도 상반기 국별 대내 직접투자유입 공표에 따르면,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대중투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특이할 점은 그 중에서도 한국은 신고금액에서 동년 전기 대비 73.5% 대중투자를 늘이고 있고, 일본은 실행금액에서 동년 전기 대비 20.4%대중투자가 늘고 있는 등, 유독 한일 양국은 2005년도에 들어서도 매우 공격적인 대중투자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임

<표15 국가별 중국 FDI 투자 현황>

순위	국가	계약건수	신장율	신고금액	신장율	실행금액	신장율
	전체	21,212	- 1.8	8,619,056	19.0	2,856,318	- 3.2
1	홍콩	6,958	- 2.6	2,779,304	18.1	804,820	- 14.8
2	버진군도	1,150	- 14.0	969,764	- 1.8	436,553	38.6
3	한국	3,327	23.0	988,541	73.5	277,608	- 4.8
4	일본	1,620	- 8.2	518,554	0.4	326,886	20.4
5	미국	1,808	- 10.0	649,753	11.6	145,975	28.9
6	대만	1,840	- 9.8	477,499	3.8	117,755	- 22.3

* 단위 : 만불, % / 출처 : 상무부 자료 JETRO 8.2일자 통상홍보 재인용

■ 중국의 대외 FDI 진출 경향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진출은 크게 보아 4단계로 나뉨[26)]

<표16 중국 해외투자진출 단계와 특징>

단계	시기	특징	투자누적액
1단계 해외진출시작	1979년 ~ 1983년	시험적 해외투자시기,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중앙정부통제	50
2단계 심의비준 초보적 규범화 단계	1984년 ~ 1992년	상무부는 개별건별 처리에서 초보적 해외투자 심의비준 전환, 투자액 점차 증가세 보임	1,590
3단계 해투관리시스템 체계화 단계	1993년 ~ 1998년	관련규정이 제정완료, 직접투자관리시스템이 체계화됨	2,612
4단계 관련규정제정/ 정책지원 단계	1999년 ~ 현재	국가차원 전략으로 '저우추취(走出去)'를 내세우고 대외개방 가속화, 투자액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15,139

* 단위 : US $ 100만불
* 출처 : KOTRA 2005. 6월 '중국기업 해외투자 러쉬와 시사점'

26) 본 장은 KOTRA 2005. 6월 발간자료 '중국기업 해외투자 러쉬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함

○ 중국의 해외투자진출은 1979년 개혁개방바람과 함께 시작[27)]

- 이 시기는 투자맹아기로서 소규모 투자가 주종, 투자영역은 해운 서비스, 금융보험, 해외건설공사, 요식업 등 소수 업종에 집중되었음
- 대부분 중국정부의 정책 목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해외투자로서, 주목표가 완전한 자본주의적인 이윤극대화에 두고 있지는 않았음[28)]

○ 1984년에서 1992년까지는 해외투자진출이 서서히 진행되는 단계로서 국가측면에서는 해외투자심사를 개별건 처리에서 심의의 초보적 비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되고 정비가 이루어지게 됨

- 1987년까지의 해외투자에서는 특히 자원개발 투자진출이 증가하여, 200여개의 개발도상국가와 어업자원개발, 광업자원개발이 추진됨
- 중국은 80년대 후반 자국 내의 자원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투자가 증대
- 이후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까지는 국유기업 이외에도 민영기업의 이윤획득을 위한 투자진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됨

○ 1993년부터 중국경제는 일시적인 긴축조정에 들어가게 됨, 경기 과열, 물가 상승, 국유 기업 효율성 저하에 따라 경제조정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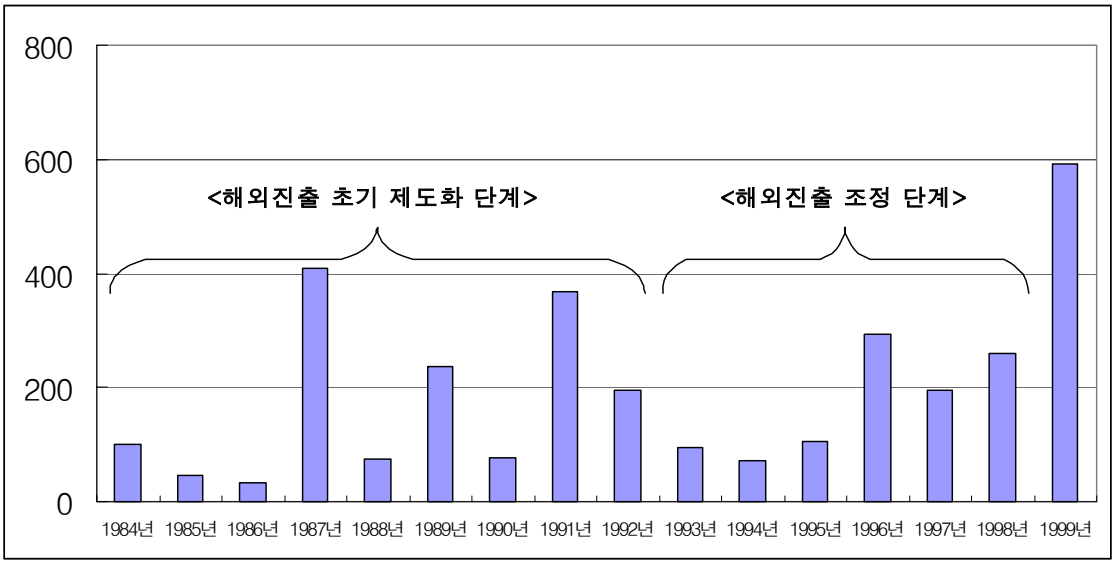
- 해외투자 프로젝트 역시[29)] 엄격한 심사비준을 실시함.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재등록을 실시하여 투자진출기업수와 투자액이 상당부분 감소하다가 90년대 후반으로 들면서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27) 1979년 11월 베이징시 여우이 상업서비스공사(北京市友誼商業服務總公司)와 일본 東京丸一商事株式會社가 합자로 도쿄에 '京和주식유한공사'설립한 것이 중국의 대외개방 이래 해외합자 기업 1호로 보아짐

28) 해외투자경험부족, 경영미흡 등으로 적자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였으며, 1983년 대외경제무역부는 국무원 지침에 따라 경영이 부실한 기업을 철수조치를 취함

29) 中정부의 거시경제 조정, 긴축정책, 통화팽창억제 등으로 자금 긴축이 이어짐에 따라 해외투자도 조정시기에 돌입함

<그림7 80~90년대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 단위 : US $ 100만불
* 출처 : KOTRA 2005. 6월 '중국기업 해외투자 러쉬와 시사점'

○ 한 편,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마무리되던 1999년부터 중국은 적극적인 입장으로 해외투자진출정책을 전환, 활발한 해외투자증가세를 보임

- 해외투자진출 절차 간소화, 해외진출 신용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적 지원 조치가 이어짐
- 특히 2004년은 역대 해외투자진출이 가장 왕성한 한해로, 2004년 해외투자액은 37.12억 달러로 98년에 비해 무려 14배나 급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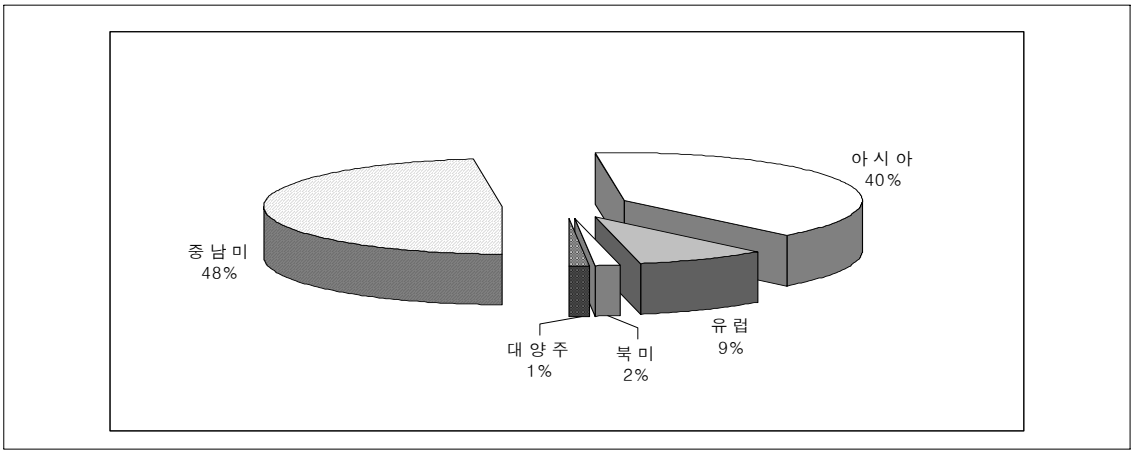
<표17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해외투자진출액 추이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기업수	266	220	243	232	350	510	829	8,299
투자액	259.00	590.64	550.97	707.54	982.68	2,086.89	3,712.00	15,139.00
증감율	32%	128%	-7%	28%	39%	112%	77%	-

* 단위 : US $ 100만불 / %
* 출처 : KOTRA 2005. 6월 '중국기업 해외투자 러쉬와 시사점'

○ 2004년 중국 해외투자진출을 지역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그림8 2004년 중국의 해외투자진출액 지역별 추이>



* 출처 : 2004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공보(상무부), KOTRA 자료 재인용
* 중남미 지역 투자에는 케이만 군도 등 조세포탈지역 통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보임

○ 중남미지역을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은 13.96억 달러로 38.6%를 차지, 가장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음[30]. 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홍콩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룸

- 그 외에 유럽, 아프리카, 북미, 대양주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누계 기준으로 국가별 중국의 투자진출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18 중국의 해외투자진출액 상위 10대국 누계액>

순위	구분	2003년		2003년 까지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홍콩	73	26,637	2,098	434,068
2	미국	83	11,306	786	94,758
3	러시아	41	33,929	523	54,623
4	호주	10	346	225	46,441
5	덴마크	1	45,930	3	45,965
6	캐나다	11	785	155	44,380
7	한국	10	19,466	72	30,249
8	태국	11	4,913	245	26,384
9	마카오	9	3,060	238	21,425
10	페루	3	91	23	20,213

* 단위 : 건수, 만 달러 / 출처 : 중국상무연감(2004)

30) 중국의 2004년 대외투자에서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16.7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비중은 46.2%임. 그러나 중남미 지역의 주요 투자지역은 케이먼 군도로 중국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이 지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의 투자비중은 큰 의미 없는 것으로 보임. 실례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엑토즈 소프트사를 인수한 상하이 성다(上海盛大)도 케이먼 군도를 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누계 총액기준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80%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홍콩, 마카오 지역이 위주가 되어 있음

- 그 외에 유럽, 아프리카, 북미, 대양주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이러한 결과는 홍콩과 마카오 지역이 중국과 가깝다는 점,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여 중국기업이 해외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점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임

- 그 외 지역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시도나, ASEAN 지역에 대한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투자등

○ 한 편, 최근 중국의 대외투자의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M&A에 의한 투자진출임

<표19 최근 중국 M&A 투자 추이 >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수	13	35	22	35	73
M&A금액	101	470	452	1,047	1,647
증감율	-	365%	- 4%	131%	57%

* 단위 : US $ 100만불
* 출처 : UNCTAD FDI 통계

○ M&A는 자원개발, 생산.마케팅 확장, 선진기술 습득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기업의 선택지로서, 빠른 시간 내에 합병하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취할 수 있는 점과 Greenfield 형 투자에 비해서 인수비용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뒷받침 될 경우에 가능한 진출유형

○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우수기업에 대한 M&A진출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M&A의 판단은 중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시책과, 이를 수행하는 국유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의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듯

- 중국 기업의 M&A 주요 타깃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며, 이는 투기적 자본이나 재판매를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기 보다는 단기간 내에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중장기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31]

31) 다음장 최근의 중국기업 주요 M&A 사례 참고
핵심기술 인수 및 산업체인 확대 / 브랜드, 마케팅, 무형자산 획득 / 다국적기업과 제휴 통한 경쟁력 / 가전, IT 기업등에 중심을 두고 M&A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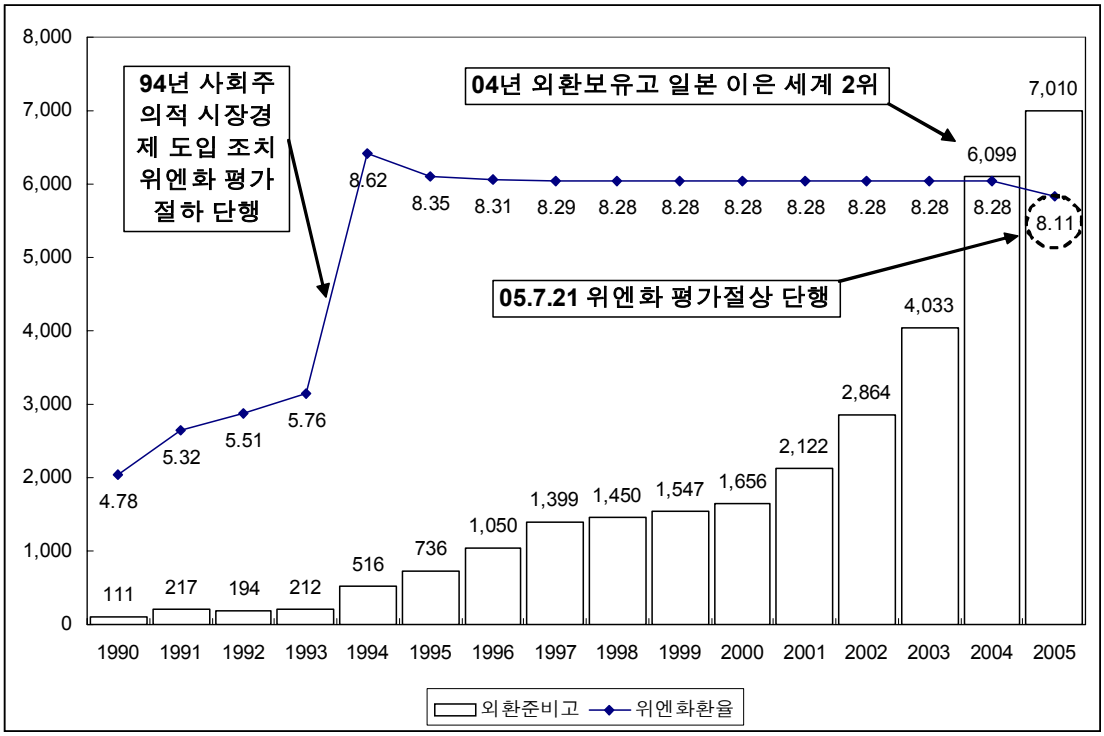
<표20 최근의 중국기업의 주요 M&A 사례 >

시기	인수 내용
2002.9	TCL사 독일 슈레이더(Schnneider Electronics AG) 인수 : TCL사가 820만 유로화를 출자하여 슈레이더의 주요 자산 인수
2003.2	BOE(京東方)사, 3.8억불(2003.2.12.공포 실제 1.22완성) 출자하여 Hydis인수(TFT-LCD분야)
2003.6	더롱(得龍國際戰略投資有限公司,D'Long)사가 독일 Fairchild-Dornier의 728형 신형 여객기 제조 프로젝트 인수. 이로써 중국의 제조기술 15년 축소
2003.7	싼지우(三九)그룹-일본 동아제약 인수 : 동아제품 브랜드 싼지우에 귀속되면서 싼지우는 동아제약의 기존 유통채널을 사용하여 일본의 의약시장을 공략할 예정
2003. 11	TCL사가 톰슨사 지분인수 : TCL사와 톰슨사는 컬러TV와 DVD자산과 업무를 합병, TCL-Thomson의 자산순가치 4.5억 유로화에 해당하는 합자회사 설립. TCL은 신규 합자회사의 67%의 지분, Thomson사는 33%지분 소유
2003.11	더롱사가 미국 Murray그룹 인수 : 더롱은 3년간 8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Murray그룹의 지분 100% 인수에 대한 비준 획득 (세계 원예기계 제 3대 브랜드)
2004.4	TCL사, 알카텔 휴대폰 업무 인수 : TCL사, 알카텔과 MOU 체결, 쌍방은 휴대폰과 관련 상품, 서비스의 개발.생산.마케팅의 합자공사 설립. 동 합자회사는 알카텔 브랜드의 휴대폰을 전세계에 독점 마케팅. 유통하게 됨
2004.10	상하이치처 그룹 한국쌍용자동차 인수 : 상하이치처는 쌍용의 48.9% 주식인수(총가치 5억 달러 초과), 이로써 상하이치처 그룹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됨. 상하이치처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중국 자동차업계에서 최대 해외 인수 프로젝트로 평가됨
2004.8	중국항유(中國航油) 싱가포르 석유공사 20.6% 지분 인수 중국항유(싱가포르)주식회사는 싱가포를 국가석유공사의 20.6%지분 소유. 중국항유는 싱가포르 석유공사의 2대 주주가 됨
2004.12	레노보사 IBM PC 인수 : 레노보는 6.5억달러와 6억달러의 달러주식으로 Think 브랜드를 포함한 PC 업무(퍼스널컴퓨터 부문)을 인수. IBM은 18.5%의 레노보 주식을 보유하고 레노보는 IBM 그룹의 45%의 지분보유. 쌍방은 협의를 통해 5년내 IBM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이로써 레노보는 델, HP 다음 제 3대 PC 제조상으로 등극
2004.12	셩다 한국 엑토즈 소프트사 인수 :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셩다는 9,170만 달러로 한국 엑토즈 소프트사 주식의 29%를 인수
2005.6	중국의 SBSG그룹이 Durkopp Adler의 94.9%지분 인수

* 출처 : 中國幷購報告2004 및 인터넷 자료 (www.online-ma.com) 종합
KOTRA 05.6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러시와 시사점' 재인용

○ 한 편, 중국은 90년대 계속된 투자유치와 무역을 통한 달러유입으로 외환보유고가 높아져 있으며, 향후 위엔화가 절상됨에 따라 해외 투자를 위한 자금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9 중국 위엔화 환율변화 / 외환보유고 추이>



* 단위 : US $ 억불 / 1 $ 당 元화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2004, 2005년 수치는 상무부 발표자료 6월까지

○ 05.7.21 위엔화 평가절상은 몇가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됨[32]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수입가격 인하로 원가절감 효과	대외수출 감소
중국기업 해외투자능력 제고	시장투기행위 성행 우려
중국내 외국기업 이윤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 감소 우려
해외유학비용 감소	수출 감소로 실업압력 증가 우려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통화긴축 발생 우려
중국 자산가치 상승	부의 효과로 빈부격차 확대 우려
중국 GDP 상승 효과	저수입 계층의 지출부담 증가
중국인의 국제구매력의 상승	농업부문 타격 심각

32) 그러나 2%대의 소폭절상이었기 때문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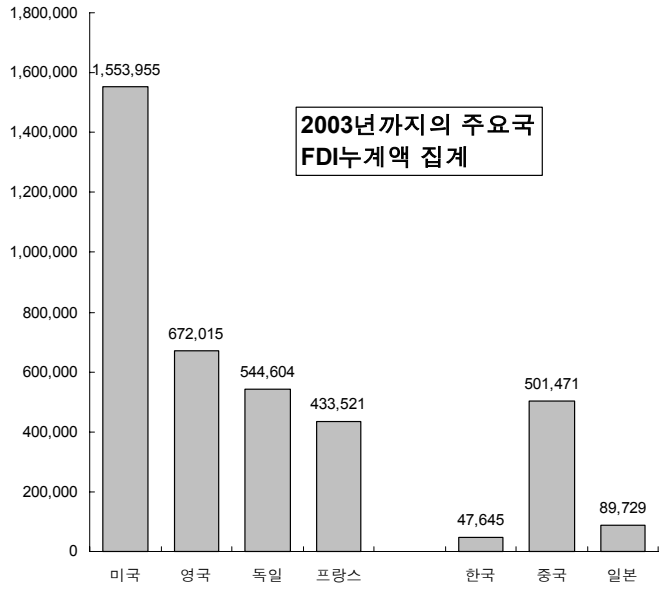
국가	반응
중국 현지	깜짝 절상으로 평가, 연말까지 추가절상 가능성 점침
미국	기본적으로 환영, 절상폭은 낮다는 반응을 보임
일본	대체로 환영, 수출 / 수입기업별로 다른 입장 보임
EU	특별한 일로 취급하지는 않음, 상징적 파급효과로 분석
홍콩	홍콩 달러화 페그제는 불변 확인, 홍콩소비진작 기대
한국	무역구조 보완적으로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은 제한적임

* KOTRA 05년7월 '위엔화 평가절상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및 영향' 현안조사 리포트 내용 발췌

■ 일본의 대내 FDI 유입 경향

○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FDI 투자유치가 부진한 나라로 알려짐

<그림10 2003년까지 주요국 FDI 누적액 / GDP 대비 FDI유치 비율>



국가	GDP 중 FDI 차지비율
미국	14%
영국	37%
독일	23%
프랑스	25%
한국	8%
중국	36%
일본	**2%**

* 단위 : US $ 100만불 / 2003년 기준임
* 출처 : UNCTAD FDI 통계

○ 그 이유로는 일본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등에서 연유한다고 보임

대일 투자 장점	대일 투자 단점
방대한 인구 및 시장	높은 지가, 물가, 임금수준
높은 소득 및 소비수준	높은 물류비용
금융자원 활용 용이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
인접국과의 교류 용이	전통적인 거래선을 중시하는 경향
투자 및 자본거래 자유의 보장	소비자의 고품질, 고서비스수준 요구
고도의 기술수준 이용가능	고급 인력의 외국계 기업 기피현상
풍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 존재	세계 수준의 일본 / 글로벌기업들과의 무한경쟁

* 출처 : KOTRA 홈페이지 일본국가정보 중 투자환경 부분 발췌

○ 이상과 같이 일본 시장은 세계 GDP의 12%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대일직접투자진출은 결코 용이치 않다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장기침체를 겪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변화의 양상을 보여줌

- 일본 정부 차원에서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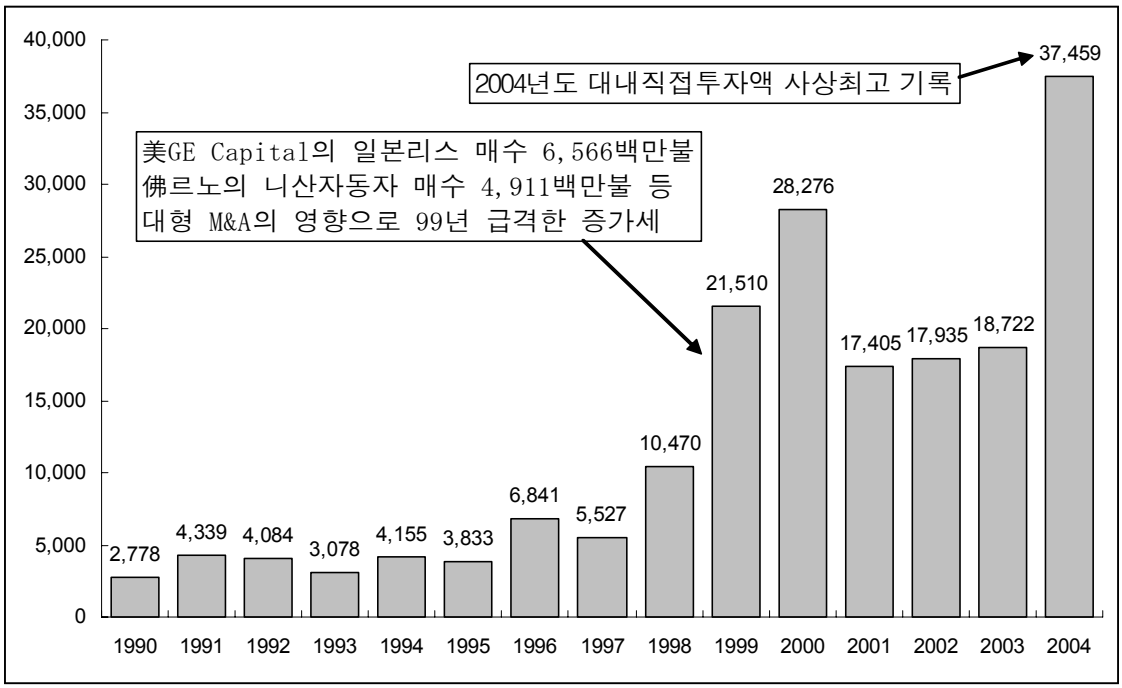
- 1999년 4월에는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이 되고 있던 규제들에 대한 완화를 실시하는 한 편, 상법을 개정, 회계제도의 변경을 통한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 지가와 오피스 임대료 및 법인세 인하등의 조치를 취함

- 2003년 1월 국회연설에서 코이즈미총리는 대일투자배가계획 발표[33)]

- 2003년 3월 대일투자유치 전문 부회를 설치, 74개 항목의 대일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책정

- 2003년 5월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대일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그림11 일본 FDI 유입액 변동 추이>



* 단위 : 100만불 / 출처 : JETRO 대내직접투자액 장기계열 통계 (신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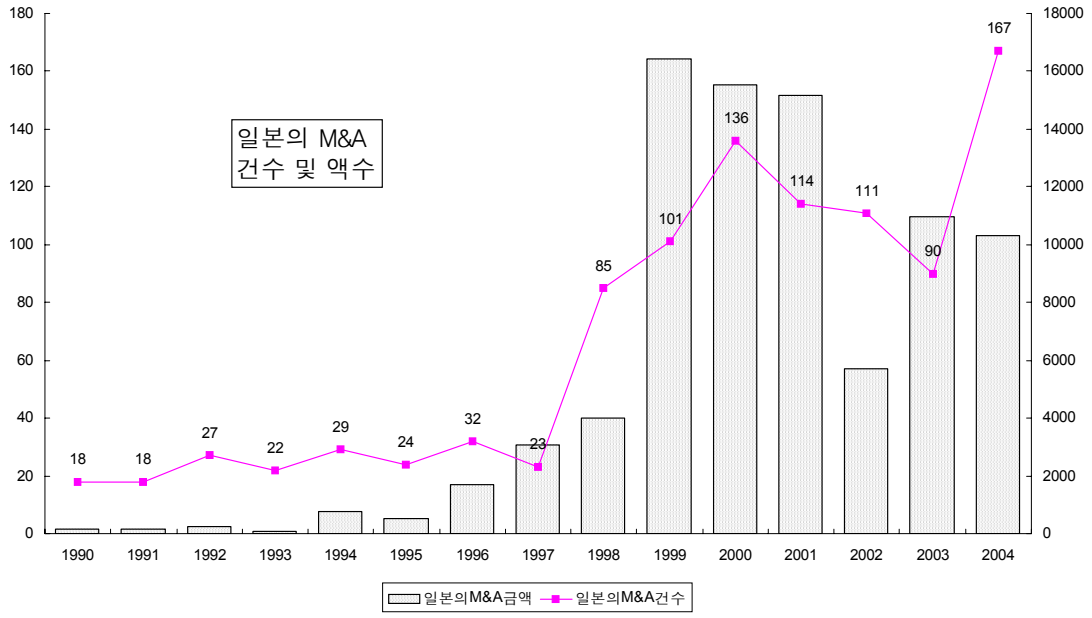
33) '일본을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진출처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5년 후에는 일본에 대한 투자잔액이 배가(倍加)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겠음'

○ 일본의 년간 외자유치액은 90년대 년간 100억불 이하에서 2000년도에는 평균 200억불 대로 급증해 있음, 이는 세계 FDI 거래 흐름이 2001년이후 주춤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일본시장이 FDI 투자유치를 위한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짐

○ 한 편, 일본투자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본의 경제성장과도 간접적 영향을 받고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GDP를 살펴보면 실질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기별로 등락을 계속하고 있으나, 2001년 성장율이 △1.1%로 감소한 이후 02년 0.8%, 03년 2%, 04년 1.9%등, 서서히 경제회복을 보여 주고 있어 향후 일본시장을 주 타깃으로 한 FDI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아짐

<그림12 일본의 M&A 건수 / 액수 추이>



*출처 : UNCTAD 2004 일본 통계

○ 한편, 일본의 FDI유치는 M&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34], 또한 2004년도에 들어서도 M&A의 증가(03년도 90건→04년도 167건)가 현저해지는 등 향후에도 일본 투자유치의 동향과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35]

34) 실례로 전년대비 100% 이상의 증가를 보인 1999년도 일본 FDI유치액의 급격한 증가는 GE 캐피탈, 르노 등에 의한 대형 M&A 투자에 의해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게 됨

35) M&A가 주로 선진국위주의 투자흐름이 큰 점, 그리고 일본 시장은 선진국에게 있어서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 등에서 공장신설형 등의 투자방식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될 듯 보임

○ M&A에 위주인 일본 투자유치를 업종별로 살피면 아래와 같음

<표21 일본의 업종별 투자유치 실적>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90~99 비율	00~04 비율
제조업 전체합계	26,234	7,155	2,621	6,749	4,310	952	39.4%	18.2%
비제조업 전체합계	40,382	21,122	14,784	11,186	14,412	36,507	60.6%	81.8%
통신업	3,414	6,793	6,622	1,412	535	4,338	5.1%	16.4%
건설업	72	0	69	19	10	31	0.1%	0.1%
상사/무역업	12,164	2,498	871	2,118	3,265	999	18.3%	8.14%
금융/보험업	12,604	9,313	5,281	5,306	9,005	27,693	18.9%	47.2%
서비스업	9,853	2,140	1,330	2,025	955	1,263	14.8%	6.4%
운송업	200	52	18	22	15	1,947	0.3%	1.7%
부동산업	1,563	313	588	239	609	213	2.3%	1.6%
합계	66,615	28,276	17,405	17,935	18,722	37,459	100%	100%

* 단위 : 100만불
* 출처 : 일본 재무성

○ 90년대 제조업 투자유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였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20% 이하로 떨어짐

○ 이를 통해 보면 최근의 대일투자유치는

1) 일본의 규제개혁에 발맞춘 통신업과 유통업등에의 진출
2) 파산하는 금융및 보험업으로의 매수참가와 개인소비자에 대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보험업으로의 참가
3) 자동차나 제약 등등 글로벌 업계 재편을 위한 합병등의 요인등의 흐름을 보임

- 통신업계의 니혼텔레콤은 2001년에 영국 보다폰에 매수된 후, 2003년에는 미국 리플우드에 매각되었다가 2004년에는 소프트방크에 재매각됨, 2002년 세이요식품에 대해서는 월마트가 자본참여를 실시하는 등, 통신 및 유통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높음

- 2001년에 쿄에이 생명보험은 미국 프루덴셜보험에, 2002년 타이헤이 소비자신용금고는 미국 시티파이낸셜(시티그룹) 등에 매각되었고, 2003년도에도 GE에 디슨생명보험(日)이 AIG에, 스미모토미츠이의 자산이 골드만삭스에 매수되는 등, 금융및 보험등에 대한 구미 선진국의 매수가 활발함. 이에 힘입어 금융/보험업은 90년대에 20% 미만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전체 투자유치 비율의 50%에 육박함

- 자동차의 경우 1999년 닛산자동차가 프랑스 르노에 매수된 이후 신임 CEO와 함께 회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추가 투자가 이어지는 등 자동차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 제약업계의 경우 2002년도 추가이 제약을 스위스 로취 홀딩이, 2003년 반유제약을 MSD가 매수하는 등 일본의 기술력 있는 제약업종들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자, 2004년도 일본 내 4~5위권인 야마노우치와 후지사와가 서로 합병을 하는 등, 업계내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키 위한 재편작업이 진행중[36)]

○ 국가 및 지역별 투자유치 현황은 일부 중남미 조세포탈구역으로부터의 투자를 감안하면 미국 유럽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가 70% 이상

- 200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40% 가량, EU15개국으로부터의 투자가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한 편,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투자유치는 미미한 수준

<표22 일본의 국가별 투자유치 실적>

	2000	2001	2002	2003	2004	00~04	점유율
미국	9,141	5,139	4,876	3,090	24,372	46,617	38.91
유럽	6,234	8,761	5,805	6,130	6,744	33,673	28.11
EU15	4,267	8,530	5,256	6,018	6,638	30,708	25.63
아시아	378	453	373	1,428	804	3,436	2.87
중국	5	3	3	3	9	22	0.02
한국	48	24	25	34	229	360	0.30
중동	3	2	1	0	4	10	0.01
아프리카	3	28	31	1	-	62	0.05
대양주	62	3	48	14	4	131	0.11
중남미	1,520	518	1,837	4,075	1,254	9,203	7.68
합계	28,276	17,405	17,935	18,722	37,459	119,797	100.00

* 단위 : 100만불, % / 점유율은 00~04년도 수치내에서의 점유율임
* 출처 : 일본 재무성, JETRO

36) 이상 JETRO 투자유치 홈페이지 및 일본경제신문, 日 톰슨파이낸셜 자료 등 참조

○ 이런 경향은 국가간 M&A의 대부분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세계 FDI의 조류흐름, 또한 일본의 FDI의 상당부분이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함

○ 따라서 일본은 세계 FDI 조류, 그 중에서도 M&A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편, 경제규모등에서 보아 90년대까지의 저조했던 투자유치실적에서부터 탈피하고 있는 현항임

- 세계경제의 회복과 일본의 강력한 투자유치 의지등을 종합해 볼 때,앞으로도 일본의 직접투자유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대외 FDI 진출 경향

○ 일본의 FDI투자진출은 크게 보아 몇 단계로 대별하여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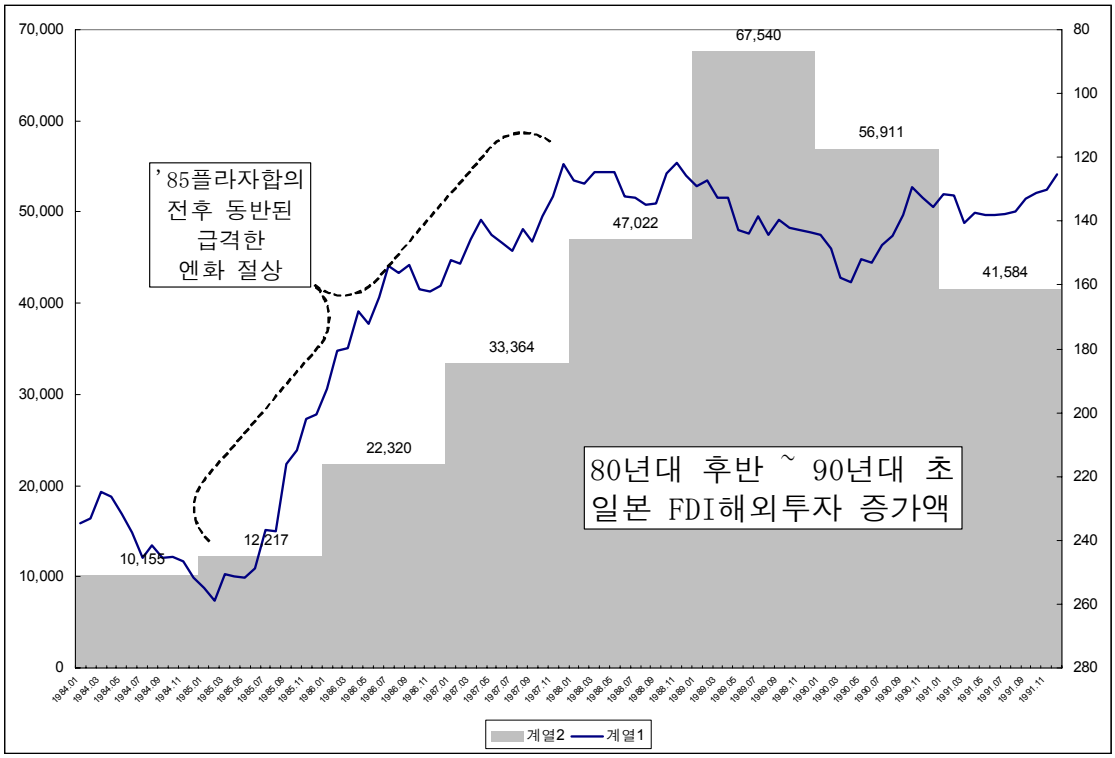
<표23 일본 해외투자진출 단계와 특징 >

단계	시기	특징	투자진출누적액
1단계 해외투자 급등	1985년 ~ 1990년	엔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동남아등) 기업의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등 급증	294,948
2단계 투자점증, 조정	1991년 ~ 1998년	대외투자건수는 줄지만, 장기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해외투자가 점증, 그러나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일시 조정국면	658,224
3단계 대중투자 증가	1999년 ~ 현재	세계 FDI 경향에 맞추어가고 있으나 M&A의 투자경향은 미국에서 EU등으로 변경, 한 편, 중국투자가 증가 중임	915,556

* 단위 : US $ 100만불
* 출처 : KOTRA 2005. 6월 '중국기업 해외투자 러쉬와 시사점'

○80년대 일본의 해외투자는 1985년 9월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37]와 함께 급증함

<그림13 80~90년대 일본 환율변화 / 해외투자진출 실적>



- 플라자합의는 사상 초유의 엔화 절상을 가져왔으며(85.1월 1불당 255엔→ 89.1월 1불당 129엔)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은 해외투자를 통해 우회수출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89년 이러한 투자진출 움직임은 절정에 이르러 년간 6,589건, 67,540 백만불이 해외투자에 나서게 되어 건수 및 액수 기준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하게 됨

- 이 시기 해외투자의 비중은 미국 등 선진국 우수기업 인수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우회수출을 위한 투자 진출 등으로 볼 수 있음[38]

37) 1985.9.22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미국,일본,영국,서독,프랑스 재무장관이 모여 달러화약세를 유도하기로 합의함

38) ASEAN 10개국 투자액 / 건수는 87년 78% / 95% 증가, 88년 78% / 57% 증가, 89년 73% / 18% 증가하는 등, 대세계 투자에 비해 집중적으로 증가하게 됨

<표24 80년대 후반 일본 해외투자 경향 변화내용>

	투자 건당 투자액 변화 (증가율) (80년대 전반* → 80년대 후반)	투자 <건수 / 금액> 증감율의 변화 (80년대 전반 → 80년대 후반)
전체	309 → 791	1% / 27% → 22% / 47%
미국	289 → 932	-6% / 25% → 29% / 58%
EU 15개국	356 → 1266	-6% / 35% → 29% / 56%
ASEAN 10개국	349 → 372	-1% / -14% → 29% / 45%
기타	307 → 672	-1% / 11% → 14%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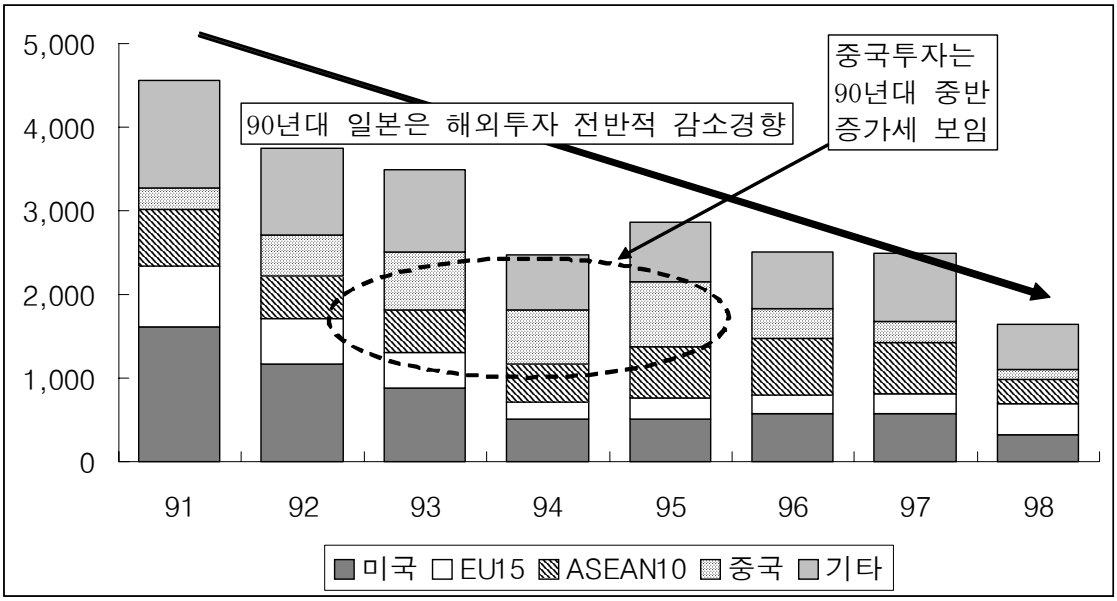
* 단위 : 건당 투자액 - US $ 만불
* 출처 : JETRO 해외투자통계, KOTRA 통계 재작성
* 주 : 80년대 전반 - 1980년~1984년도 일본 FDI 합계 구성비 및 평균 증감율
80년대 후반 - 1985년~1989년도 일본 FDI 합계 구성비 및 평균 증감율

○ 위 표를 참고하면, 일본의 미국 / EU15국가와 ASEAN 10개국에 대한 투자진출은 80년대 초반과 후반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줌

- 동일 5년간의 투자 증감율이 건수 1% → 22%로, 금액 27% → 47%로 투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급증하였음
- 미국은 건수 및 투자액 공히 일본의 1위 투자대상국으로서 엔고의 이점을 살려서 투자한 비중이 큰 것으로 보임
- 80년대 초반에는 국가별로 건당 투자액이 비슷했으나 후반으로 가면 EU15개국가는 건당 356만불에서 → 1,266만불 4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미국 역시 건당 투자액이 급증함)
- 이에 비해 동남아국가에 대한 투자는 M&A 형태가 아닌 그린필드 방식, 소액투자 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한 편, 90년대에는 일본의 장기불황 및 버블붕괴와 더불어 전반적인 해외 투자는 줄어드는 대신, 중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시기임

<그림14 80년대 후반 일본 해외투자진출 건수 변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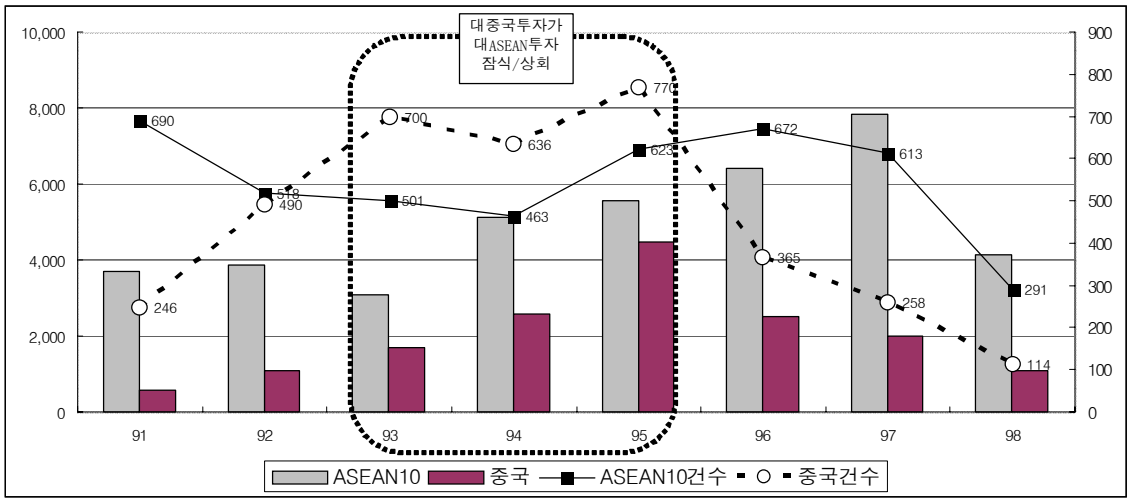


* 단위 : 건수
* 출처 : JETRO 해외투자통계, KOTRA 통계 재작성

○ 90년대 해외투자 금액은 하락, 점증하는 반 면, 투자건수는 국별로 등락 하게 됨 (선진국은 고액투자화[39], 개도국은 소액투자의 증대[40])

- 한 편,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었던 소액투자는 중국투자경향으로 전환

<그림15 80년대 후반 일본 해외투자 경향 변화내용>



* 단위 : 100만불, 건수 / 출처 : JETRO 해외투자통계, KOTRA 통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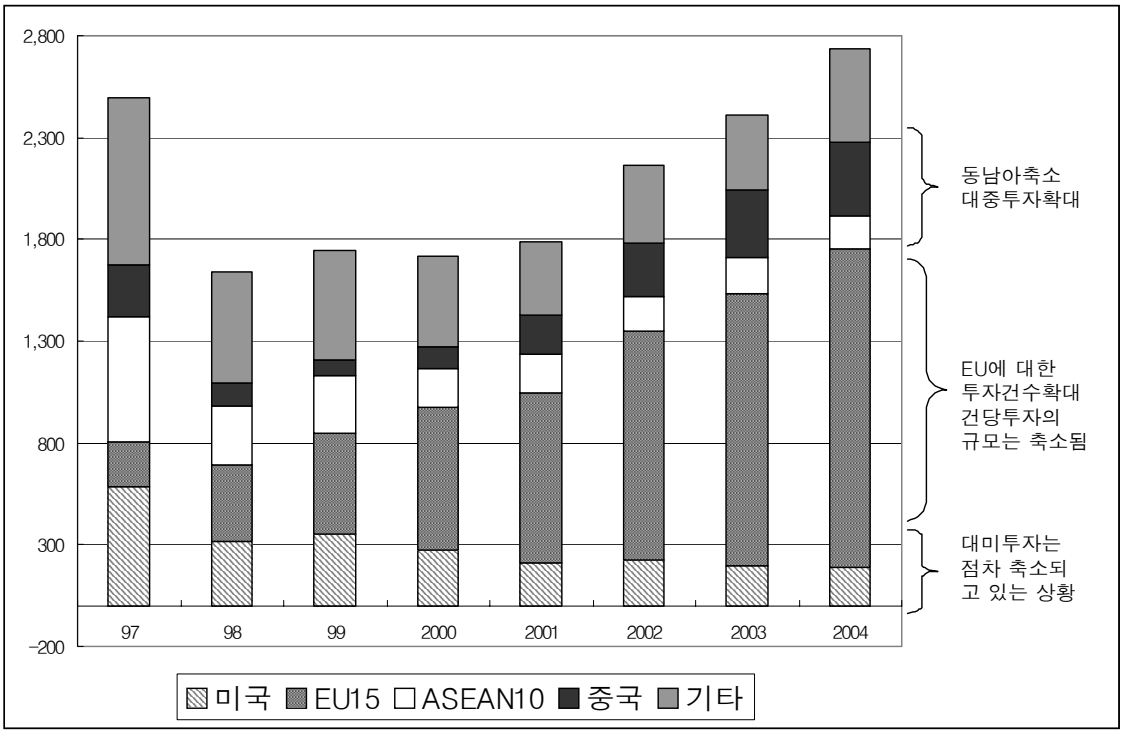
39) 엔고가 최고조에 달하는 한 편, 대선진국 투자는 점증, 그러나 대미투자는 EU투자에 따라잡혀 90년대 말이 되면 EU투자액에 역전당하게 됨, 이는 EU통합의 진전과 함께 EU국가에 장벽극복, 시장기대, 투자진출이 점증한 것으로 보임

40)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급냉하기 전까지 대아시아 년간 투자는 금액은 늘지 않지만, 건수 측면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함

○ 97~98년도경 투자진출은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과 함께 부진을 겪음

- 세계 FDI 경향 또한 소극적이었으나, 일본의 경우 동남아시아등에 진출해 있는 등 관계가 더 밀접했음, 따라서 일본기업들은 장기불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투자진출여력도 감소되어 있었음

<그림16 東亞외환위기 이후 일본 해외투자진출 건수 변화>



* 단위 : 건수 / 출처 : JETRO 해외투자통계, KOTRA 통계 재작성

○ 그러나 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해외투자는 미국, 유럽의 경제호조, 외환위기극복과 M&A의 급증등에 힘입어 직접투자가 증가됨[41)]

-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한편, 유로화를 출범시킨 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EU권을 대상으로 큰 폭의 직접투자건수 기록, 아시아권에서는 WTO 체제로의 가입에 의해 개선되는 중국의 사업환경 및 시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중투자진출 증가세를 보이게 됨

○ 이후, 2001년 이후 일본의 해외투자진출은 점증하고 있으며, 산업의 공정에 따른 세분화와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41) 일본의 해외투자진출 M&A / FDI 금액비율은 90년 - 29%, 95년 - 17%, **2000년 - 54%**, 2003년 - 30% 등으로 2000년대 초반 크게 증가했었음, 이는 그린필드형의 투자 대신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M&A 투자형태가 는 까닭임

○ 한 편, 일본의 해외투자는 각 기간별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 그리고 건수 기준으로 다르게 해외진출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5 일본 해외투자진출의 업종별 금액/건수 비중변화>

	금액기준 각 기간별 비중			건수 기준 각 기간별 비중		
	85~90	91~98	99~2004	85~90	91~98	99~2004
제조업	**24.9**	**34.0**	**44.0**	**29.0**	**41.1**	**28.6**
식료품	1.3	1.9	6.9	2.7	2.7	1.9
섬유	0.8	1.5	0.5	2.4	8.5	1.0
목재,펄프	0.8	0.9	0.5	1.2	1.4	0.5
화학	3.0	5.0	6.0	3.0	3.6	3.6
철,비철금속	2.3	2.9	2.3	2.8	4.2	2.8
기계	2.6	3.0	2.7	3.7	4.1	3.2
전기 전자	7.2	9.1	13.3	5.4	6.8	6.5
수송기계	3.3	4.8	9.2	2.3	3.3	5.5
그외제조업	3.5	4.8	2.5	5.6	6.7	3.6
비제조업	**73.7**	**64.7**	**55.3**	**69.7**	**58.1**	**71.2**
농,임업	0.2	0.3	0.1	1.2	1.0	0.3
수산업	0.1	0.2	0.1	0.9	0.8	0.2
광업	2.2	2.9	2.5	1.4	2.5	0.8
건설업	0.7	0.9	0.4	1.4	1.2	0.5
상업	8.4	10.6	7.9	16.9	12.8	7.1
금융/보험	24.3	18.4	23.8	5.6	6.0	47.0
서비스업	12.8	13.2	5.5	12.3	13.0	6.9
운송업	5.3	5.0	12.4	8.8	8.3	6.8
부동산업	18.6	13.2	2.5	21.0	12.3	1.4
그외비제조	0.8	0.0	0.0	0.3	0.0	0.0
지점	1.5	1.3	0.8	1.3	0.8	0.2

* 단위 : % / 출처 : 대장성, KOTRA 통계 재작성

○ 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투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투자건수 면으로 보면 금융/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진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반적인 제조업의 증가보다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

-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전자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투자건수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대형 자동차업계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진 것 또한 수송기계부분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비제조업 중에서는 부동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반면, 금융/보험업계로의 투자진출건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42)]

42) 최근 사상최고의 외환보유고, 엔고현상, 일본 국내의 마이너스 금리및 경기회복의 지연화 등에 따라 일본의 금융업종은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한중일 무역 및 상호 FDI 흐름과 경향

■ 최근 한중일 무역 흐름의 정리

○ 한 편, 3국간 FDI 투자를 좌우하는 하나의 요소로 무역흐름을 그 현상적 지표로 살펴볼 수 있음

○ 한, 중, 일 교역 패턴은 2004년 기준, 일본은 한국에 대해 24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한국은 중국에 202억을, 중국은 일본에 대해 244억달러의 흑자를 보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상을 이룸

<표26 2000년 이후 한중일 교역현황 변화>



구분	한중교역		한일교역		일중교역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교역액	314.1	739.4	522.9	678.4	854.1	1,684
증가율	+ 135%		+ 30%		+ 97%	
무역수지	58.1	201.8	113.6	244.4	247.6	204.7
증가율	+ 247%		+ 115%		- 17%	
흑자국	한국		일본		중국	

* 단위 : 억불
* 출처 : 한중, 한일교역 KOTIS, 일중교역 WTA 등

-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교역액의 폭발적 증가(2000년~2004년 교역 135% 증가)가 이루어지는 한 편, 한국의 대중흑자 또한 심화됨
- 한국과 일본의 교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동기간 교역 30% 증가)에 있지만,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동기간 115%에 달함
- 중국과 일본의 교역은 상당한 규모로 증가(동기간 교역 97% 증가)하는 한 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흑자폭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임[43]

○ 한 편,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상호교역은 4위 이내의 수출입 상대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어 경제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함
- 2004년도 한국입장에서 중국은 1위 수출국, 2위 수입국임 / 일본은 3위 수출국이자 1위 수입국임

43) 한중일은 상호 무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둠
- 한국은 제조를 위한 기술집약적 부품의 수요를 일본에서 충당
- 중국은 중간재를 수입하여 노동력을 활용한 최종재 생산에 주력
- 일본은 중국 저가품목의 수입으로 소비자후생을 증진하는 효과 등

- 일본 역시 중국이 2위 수출국이자 1위 수입국인 등, 3개국의 상호 의존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한중일 3국의 교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된데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해 대중교역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함

-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등장하면서 한·일 양국 모두 대중 수출비중이 매년 증가함. 예를 들어 2000년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10.7%에서 04년에는 19.6%로 일본의 대중수출 비중은 4.9%에서 12.0%로 증가함[44]

○ 한중일 3국의 수출상대국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10~20%대), 한국, 일본의 경우, 대중수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대미수출의 비중은 상당폭 감소하고 있음[45]

■ 최근 한중일 무역 흐름의 요인

○ 한중일 3국간에 맞물리는 흑자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3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산업의 단계와 3국간의 투자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기준으로 파악된 대중, 대일 무역거래의 품목 구성비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극명하게 드러남

- 먼저 일본→한국 거래에서 보이고 있는 품목의 구성비는 90년대 꾸준히 실시된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정책 폐지에 따라 일본 소비재의 유입이 늘어나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체 대일 수입이 감소(-2.3%)하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재 유입은 늘어나고(+7.8%)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전체 수입 증가분 (+44%)에 비히 원자재 부문 수입이 크게 증가(+66.4%)하고 있어 대조를 이룸[46]

-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의 성격변화에서는 전체적으로 폭발적인

---

44) 특히 대중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현지생산에 따른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의 증가로 최근들어 대중 수출 비중이 급증중임

45) 수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의 대중의존도가 가장 높아지고 있고, 중국은 대일 수출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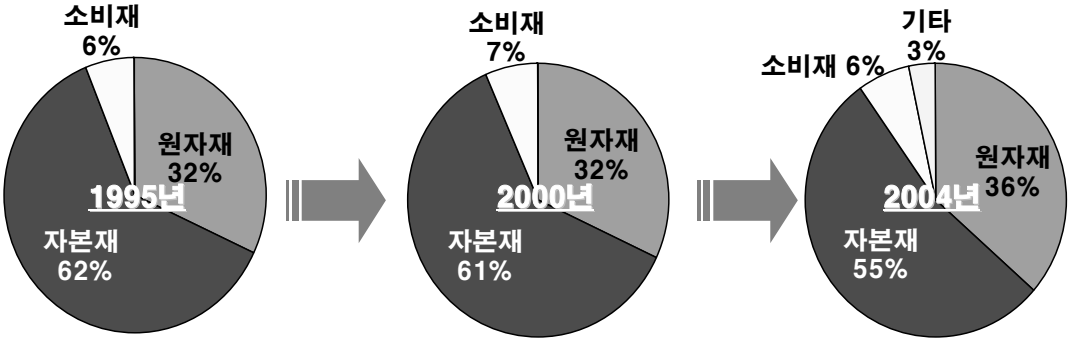
46) 이는 종래 기계 및 생산설비의 상당부분이 일본제 제품이 많아, 한국생산 및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 또한 늘어나고 있는 대일 의존구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됨

대중수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의 수출이 평균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경향[47]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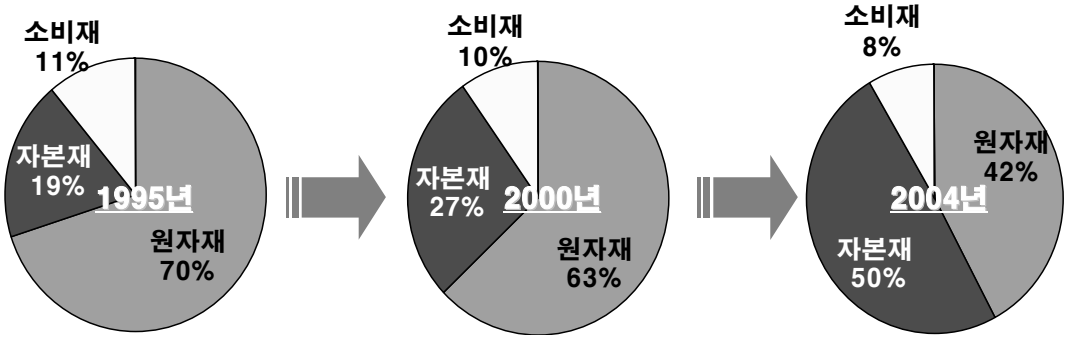
○ 이를 통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 형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형태와 유사한 구조로 점차 진전되어 나감을 알 수 있음

<그림17 일본→한국, 한국→중국 수출시 품목 구성비 변화>

[알본 → 한국 수출 품목 변화]



[한국 → 중국 수출 품목 변화]



* 단위 : % / 출처 : KOTIS 자료 KOTRA 재정리

- 한국의 90년대 대중 수출은 원자재 수출에 중심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은 자본재의 수출에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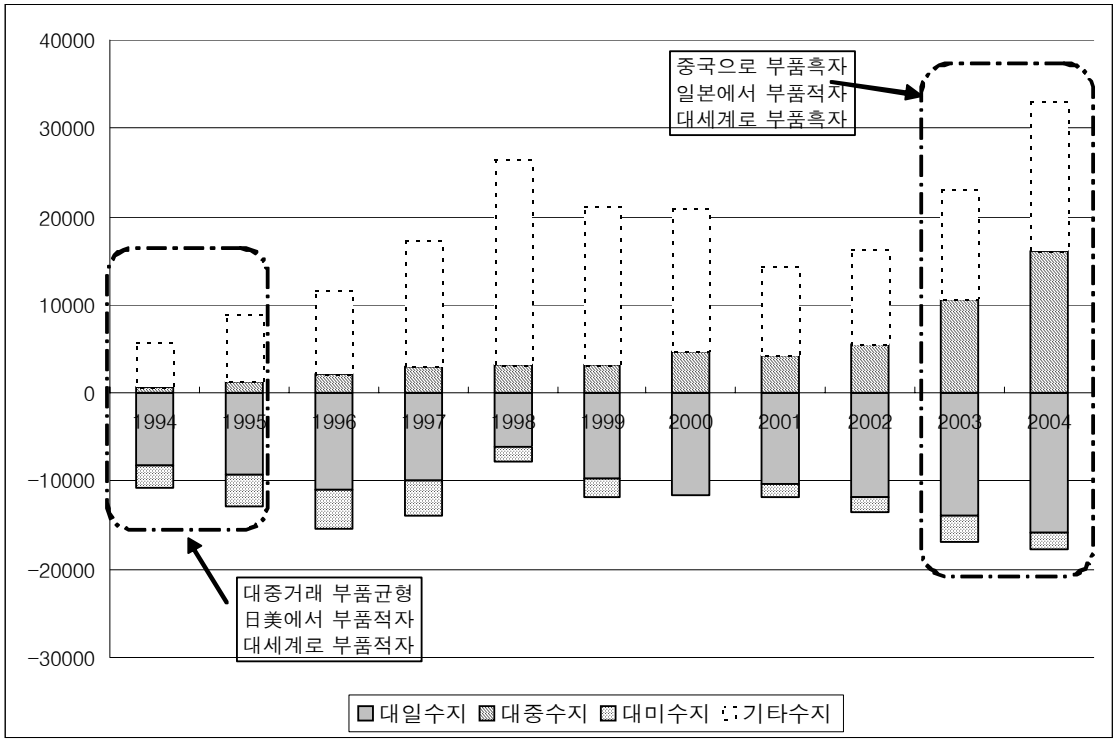
- 이는 90년대 이후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형태가 자본재중심으로 고착화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 본다면, 산업내에서의 교류협력과 공정단계에 있어서의 분업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됨

47) 95~00년과 00~04년 사이의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은 전체평균이 각각 101.8% / 169.6%인데 비해 , 자본재 수출증가율은 각각 190.4% / 385.7%를 기록함으로서 평균의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수출은 곧 한국 및 일본의 수출 등에 순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줌

○ 한 편, 한국이 중국, 일본과 활발히 수출입을 형성하고 있는 자본재 중 부품소재 산업의 세계수지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중국 및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그림18 94~2004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대세계 수지현황 >



* 출처 : 산업자원부-기계산업진흥회 부품산업통계 홈페이지 자료 KOTRA 재정리

- 한국의 경우 90년대에는 일본 및 미국에서 부품수재 적자폭이 크고 이에 비해 중국과의 부품소재부문 무역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 따라서 대세계 부품소재부문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00년도 이후에는 중국으로 부품소재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중 부품수지 흑자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음, 동시에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수지적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으로서 서로 그 수지폭이 상쇄가 됨, 결국 대세계 부품소재부문 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있음

○ 한중일 3국의 이러한 무역형태가 발생하는 것은 IT 부문에 있어서 완성품과 부분품의 무역특화계수의 차이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음[48)]

[표27 IT 관련제품(완성품) 무역특화계수(대세계)]

국가	2000	2001	2002	2003
한국	0.280	0.388	0.450	0.505
중국	0.254	0.281	0.378	0.444
일본	0.254	0.201	0.190	0.177

[표28 IT 관련제품(부품) 무역특화계수(대세계)]

국가	2000	2001	2002	2003
한국	0.168	0.068	0.112	0.113
중국	-0.239	-0.234	-0.228	-0.249
일본	0.364	0.297	0.337	0.344

* 출처 : JETRO 센서 2004년 8월호 중 발췌, KOTRA 재정리

○ 위 표에서 IT 관련 완성품의 경우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 수치를 나타내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수출에 대한 특화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도 낮아지기는 했으나 특화강점을 지니고 있음

○ 이에 비해 IT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수치가 - 를 나타내는 등, 부품관련하여 취약성을 분명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음

○ 앞으로 만약
- 중국의 한국/일본에 대한 해외투자가 활성화,
-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획기적인 개선,
- 중국의 부품소재 핵심산업 기술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투자는 한중일 역내무역흑자의 흐름을 일→한→중 의 형태로 고착화될 것이며 이러한 3국간 무역에서의 경향성은 일정부분 계속 될 것임

48) 무역특화계수란 -1에서 1까지의 수치로서 -1이면 완전수입, +1이면 완전수출을 의미하며, 수치가 크면 클수록 그 국가안에서 그 항목에 대한 경쟁력(수출경향)이 강한 것으로 비견하여 볼 수 있음

■ 한중일 상호 FDI 양상 및 실태

○ 무역의 형태에서도 알 수 있듯 3국은 상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은 FDI 유치의 잠재력이 높은 편임, 또한 한중일 삼국은 상호 FDI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동북아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살펴볼 때에,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한중일 3국 상호간의 FDI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한국 : IMF사태 이후, 제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중국으로 빠르게 진출중이며, 대일진출은 미약함
-중국 : '저우추취(走出去)'가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 대일 투자는 미약함
-일본 : 90년대 이후 대중투자가 큰 테마가 되고 있으며, 대중투자는 대한투자와 경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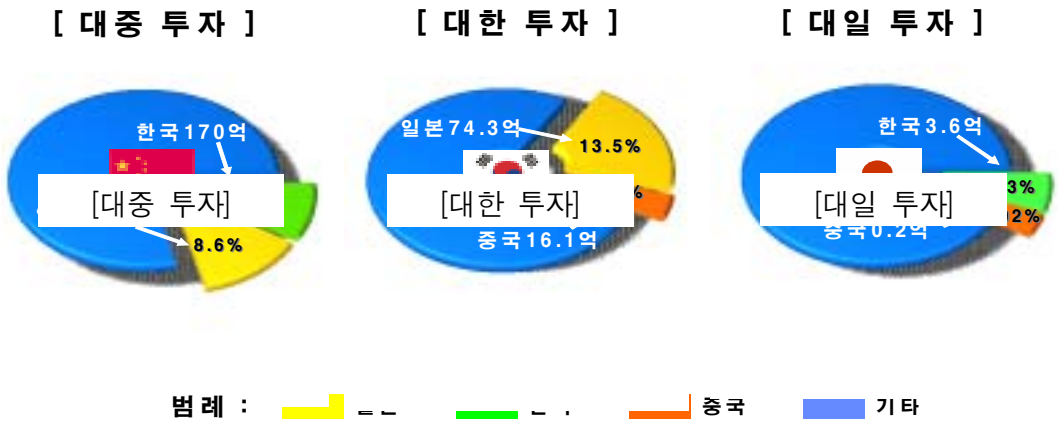
<표29 2000년 이후 한중일 상호투자유치액 비교>

국가	2000~2004 투자액	2000~2004 누계액	2000~2004년도 유치국에서 투자비중
중국 전체 투자유입액	53,781	254,498	100
일본 전체 투자유입액	37,459	119,797	100
한국 전체 투자유입액	12,785	54,854	100
한국 → 중국	6,200	17,051	6.7
일본 → 중국	5,500	22,007	8.6
일본 → 한국	2,257	7,426	13.5
중국 → 한국	1,164	1,611	2.9
한국 → 일본	229	360	0.3
중국 → 일본	9	22	0.02

* 출처 : 산업자원부,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상무부 통계, JETRO 통계 등
* 위 통계는 투자유입국의 통계에 따른 것으로 투자진출국의 통계와는 다름[49)]

49) KOTRA 2월 '중국 FDI 확대와 드러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 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신고통계가 62억인 반면, 한국 수출입의 은행의 대중투자액이 21억으로 양국간의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중국진출 기투자기업이 투자법인 영업이익 등으로 중국내 재투자한 경우, 국내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중국 통계에는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과 ▲ 이외에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국내 송금이나 신청절차 없이 중국에 투자한 경우 등이 그 요인으로 들 수 있음,

○ 3국 전체투자유입액은 2000년도 이후 중국/일본/한국 순임[50]



* 출처 : 상동

- 이는 세계 투자에서보다 3국간 투자가 제조업쪽에 비중이 더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

- 투자입지에서 인건비와 물가 등의 요인 과 3국간 심리적거리감, 역사관계, 군사관계 및 친소 등의 영향인 듯

○ 투자가 이루어진 시장에서의 비중을 살피면,

- 중국시장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은 각각 6.7%, 8.6%의 점유율을 점하면서 의미있는 Player의 비중을 차지

- 한국 시장에서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전체 13.5%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대일투자유치는 한국의 주요한 유치전략대상국가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비해 중국의 대한투자는 아직은 부족함

- 일본시장에 있어서는 한국, 중국 모두 투자의 절대적인 투자액과 비중이 극히 낮으며(0.3%, 0.02%) 향후 증가가능성 존재

50) 이는 2003년까지의 UNCTAD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직접투자 총계 누적 유입비중에서도 나타남

	아시아	**중국**	홍콩	싱가폴	**일본**	말련	**한국**	태국	대만	인도
누계액	15,512	**5,015**	3750	1473	**897**	590	**475**	369	339	308
비중	100	**32.3**	24.2	9.5	**5.8**	3.8	**3.1**	2.4	2.2	2.0

○ 한 편,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각국의 비중을 살펴 보면[51]

- 한국은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이 최대 투자상대국으로서 대중투자가 신고기준 45.8%에 달할 정도, 대일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함

- 중국의 경우 대한투자는 03년까지 누계 7위수준의 투자상대국이며 그 투자액 비율은 10%정도, 이에 비해 대일투자는 극히 저조한 수준임

- 일본의 경우 대중투자는 대동남아시아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며 꾸준히 증가해 옴(2004년도에는 급격히 증가, 12.8%를 차지하여 대미투자 13.1%에 육박), 대한투자는 90년대 이후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증감양상을 띰(2004년도 2.3%)

■ 최근 한중일 상호 FDI 투자의 특징

○ 2004년도에 들어 가장 특이할 점은 최초로 대중투자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있다는 점임[52]

- 이는 2005년도 상반기의 대중투자유치실적발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최근에 와서도 일본을 추월하여 급속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 보임

<표30 2005년도 상반기 국가별 중국 FDI 투자 현황>

순위	국가	계약건수	신장율	신고금액	신장율	실행금액	신장율
	전체	21,212	- 1.8	8,619,056	19.0	2,856,318	- 3.2
1	홍콩	6,958	- 2.6	2,779,304	18.1	804,820	- 14.8
2	버진군도	1,150	- 14.0	969,764	- 1.8	436,553	38.6
3	한국	3,327	23.0	988,541	73.5	277,608	- 4.8
4	일본	1,620	- 8.2	518,554	0.4	326,886	20.4
5	미국	1,808	- 10.0	649,753	11.6	145,975	28.9
6	대만	1,840	- 9.8	477,499	3.8	117,755	- 22.3

* 단위 : 만불, % / 출처 : 상무부 자료 JETRO 8.2일자 통상홍보 재인용

51) 1995~2003년도 한중일 각국의 투자진출액 통계를 집계하여 투자국의 대상국에 대한 상대비율은 아래와 같음

	대한민국	대중국	대일본
한국	-	19.7%	1.7%
중국	8.7%	-	0.7%
일본	1.2%	4.4%	-

* 출처 : KIEP '한중일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교분석'

52) 한국은 2004년도 화교권을 제외하고 제 3국으로선 대중투자 1위에 달함, 2005년도 상반기에는 신고금액상으로 홍콩에 이어 2위국가로 올라섬

- 반면, 한국은 건당 투자액에 있어선 전체평균 406백만불, 미국 359백만불, 일본 320백만불, 에 비해 저조한 297백만불로서, 투자의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 재투자 비율이 높음

○ 투자 내용면에 있어서는 3국의 세계로부터의 투자유치 측면에서 보면
- 한국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서비스업)의 투자유치가 비슷하며,
- 중국은 제조업의 추세가 두드러지고,
- 일본은 서비스업의 유입추세가 두드러짐[53)]

<표31 세계 대비 한중일 FDI 투자유입 중 제조업 비중>

	산업	1998~2000	2001~2003	합계
선진국	전산업	-	-	5,068,000
	제조업	-	-	1,602,000
	제조업비중	-	-	31.6
개도국	전산업	-	-	2,303,000
	제조업	-	-	840,000
	제조업비중	-	-	36.4
한국	전산업	39,612	26,861	66,473
	제조업	21,034	6,944	27,978
	제조업비중	53.1	25.9	42.1
중국	전산업	155,705	151,963	307,668
	제조업	69,586	108,117	177,703
	비중	44.7	71.7	57.8
일본	전산업	60,327	53,644	113,971
	제조업	18,335	13,474	31,809
	비중	30.4	25.1	27.9

* 단위 : 100만불, % /
* 주 : 선진국과 개도국 수치는 2002년도 1년간의 수치임 (UNCTAD)
* 출처 : 각국통계 KIEP '한중일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교분석' 재인용, UNCTAD 등

53) 표31를 참조

○ 한 편, 투자 내용면에서 형태별 특징을 한중일 3국간 투자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32 한중일 3국간 FDI 투자중 제조업의 비중>

		대세계		중국		일본		한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한국	전산업	36,390	100.0	7,162	19.7	630	1.7		
	제조업	19,551	100.0	5,986	30.6	154	0.8		
	비중	제조업비중 53.7		제조업비중83.6		제조업비중24.5			
일본	전산업	414,426	100.0	18,181	4.4			4,878	1.2
	제조업	169,860	100.0	14,083	8.3			2,816	1.7
	비중	제조업비중41.0		제조업비중77.5				제조업비중57.7	
중국	전산업	5,777	100.0			40	0.7	504	8.7

* 단위 : 100만불, %
* 출처 : 각국통계 KIEP '한중일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교분석' 재인용

- 한국의 경우, 대중투자진출의 대부분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가 실제함, 한 편 대일투자진출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54]

-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한, 대일 진출 초기단계로서 고기술업체 M&A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큰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55]

54) 서비스산업 중 IT, 문화컨텐츠 부분등의 진출이 두드러짐. NHN 한게임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0년 진출하여 ID 등록자 600만명, 04년말 게임사이트 부문 1위, 블로그서비스랭킹 3위등을 차지하는 등 활발히 진출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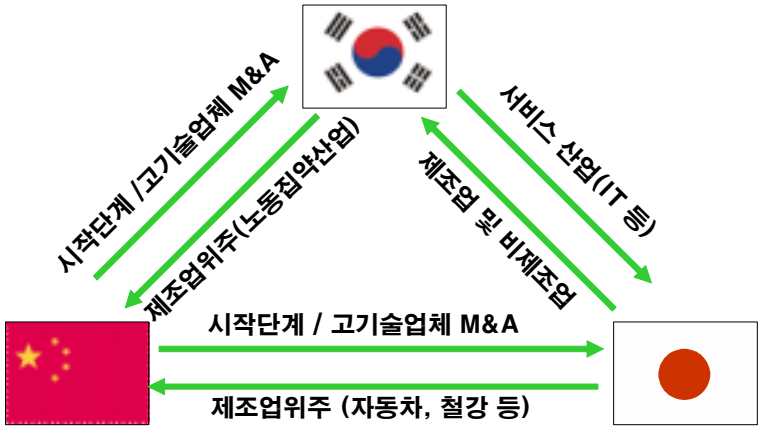
55) 중국 상무부 2004년 10월 발표 주요국별 투자 대상 업종을 아래 표와 같이 발표하고 있으며, 02년의 중국 BOE에 의한 하이디스 인수(LCD부문) 1.5억불, 04년 상해기차에 의한 쌍용자동차 인수 5.6억불, 상하이셩다에 의한 엑토즈 소프트사 인수(온라인게임) 1.3억불 등은 대외투자산업지도등에 의한 진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함

<표33 중국의 주요 투자대상국별 투자대상업종>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한국	- 자동차 등 교통운송설비 제조 - 화공원료 제조, -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	- 무역,유통 - R&D, 건축 - 건축 - 교통운송
일본	-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 - 인쇄 기계제조 - 계측기 및 문화사무용품 기계 제조	- 무역, 유통 - R&D, 건축 - 소프트웨어 개발 - 교통운송
미국	- 자동차 부품 등 교통 운송 설비 제조 - 가전용 전자기기 제조 - 방직의류제조 - 원예설비 - 전동기구	- 무역, 유통 - 창고, R&D - 소프트웨어개발 - 전신 서비스 - 교통운송 - 금융

* 출처 : 상무부 2004년 10월 <대외투자국별산업지도목록> 해당부분

-일본의 경우 대중투자는 제조업중심(자동차. 철강등)으로 되어 있으나[56], 대한투자는 나고 있음



* 출처 : 동 보고서 내용 중 발췌

56) 대중투자를 주도하는 자동차메이커 토요타, 닛산, 혼다가 모두 진출하여 있으며, JFE철강등 대중진출이 활발함, 대한진출의 경우 2003년도에는 금융권에서의 진출, 2004년에는 소니-삼성합작투자 LCD1.8억불등이 큼

■ 기타 한중일 3국의 FDI 투자환경 제반사항 비교

○ 한중일 3국의 FDI 성과는 GDP, 무역규모 등 세계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저조한 수준임

- 그러나, 대내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잠재력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높은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상당한 부분의 대내투자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음
- 대외투자진출 성과 : 일본 - 한국 - 중국 순
- 대내투자유치 성과 : 중국 - 한국 - 일본 순
- 대내투자유치 잠재력 : 일본 - 한국 - 중국 순

<표34 한중일 대세계 FDI 관련 지수>

[대외투자진출 성과지수]

	순위	1998-1990	1998-2000	2001-2003
한국	47	0.306	0.333	0.267
중국	58	0.214	0.055	0.150
일본	41	..	0.055	0.405

[대내투자유치 성과 지수]

	순위	1998-1990	1998-2000	2001-2003
한국	120	0.369	0.520	0.314
중국	37	1.033	1.232	1.969
일본	132	0.002	0.054	0.087

[대내투자유치 잠재력 지수]

	순위	1998-1990	1998-2000	2000-2002
한국	18	0.311	0.388	0.387
중국	39	0.175	0.251	0.273
일본	16	0.400	0.412	0.389

* 출처 : UNCTAD Country Fact Sheets에서 각국 지표
* 단위 : 대외투자진출 성과, 대내투자유치 성과 - 세계 GDP분의 FDI 비율중 해당국 차지 비중
대내투자유치 잠재력 - UNCTAD가 12가지 경제지표 및 정치변수 적용한 잠재력 수치

○ 대내투자유치를 수행하는 3국은 투자유입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느정도 특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동북아시장을 주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3국은 투자유치 경쟁국이기도 함

○먼저 3국은 투자유입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음

- 한국은 IT부문, 금융부문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유입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M&A(42%)와 그린필드형 투자유입(49%)등,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입이 70%에 이르고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는 M&A가 아닌 그린필드형 투자가 또한 많이 이루어짐
- 일본은 비제조업(82%), 특히 금융부문(47%)이 투자유입의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는 M&A 투자가 큰 비중임[57]

○ 이상은 3국의 생활물가 및 인건비 등의 지표를 통해서 이유가 드러남

<표35 한중일 생활물가 및 인건비 지표>

구분	한국(서울)	중국(상하이)	일본(동경)	비고
생활 물가 & 구매력 관련 지표				
물가	77.6	71.9	110.3	노르웨이 오슬로를 100으로 기준
구매력	48.5	19.1	74.7	스위스 쮜리히를 100으로 기준
음식가	101.7	64.3	129.4	스위스 쮜리히를 100으로 기준
여성복(중급)	730$	300$	1,270$	투피스, 양말, 신발
남성복(중급)	950$	630$	1,280$	상하의, 셔츠, 양말, 신발
가전 제품	94.0	84.6	94.5	스위스 쮜리히를 100으로 기준
택시요금	4.86$	2.42$	15.96$	5km 주행시
호텔비용	320$	250$	440$	고급 더블룸
임금 & 노동력 관련 지표				
임금	7.90$	3.30$	17.60$	1시간당 급료
년간노동시간/휴가일수	2,270HR/20일	1,958HR/13일	1,864HR/16일	년간 수입
공장관리자임금	31,600$	36,200$	61,700$	년간 수입
전자기술자 임금	32,900$	12,100$	71,500$	년간 수입
건설노동자임금	8,200$	3,000$	34,300$	년간 수입
금속공업자 임금	34,600$	4,600$	50,000$	년간 수입
여성직공 임금	6,700$	3,000$	26,100$	년간 수입

* 출처 : UBS 2003년판 Prices and Earnings에서 해당 항목 발췌 정리

57) 업종비율 수치는 본보고서 한국 2004년도, 중국 2003년도, 일본 2004년도 통계중 업종 비율등임

○ 위 지표에서 드러나듯,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소비물가 및 구매력이 형성되어 있음, 최근 10년간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일본이지만, 아직도 높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반해,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임금이 대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업 노동자, 여성직공 등의 임금은 중국이 월등히 저렴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대일투자가 비제조업, 서비스 금융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그리고 대중투자는 저렴한 노동력, 물류비용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 대한투자는 중간적인 특징이 있음

○ 한 편, 한중일 상호간의 투자협정은 아래와 같이 체결이 되어 있음

<표36 한중일 투자관련 상호협정 체결시기>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상호투자협정		DTT(Double Taxation Treaty) 이중과세협약 체결
	체결	발효	
한국 - 중국	1992. 9.30	1992.12. 4	1994
한국 - 일본	2002. 3.22	2003. 1. 1	1970,1998
중국 - 일본	1988. __. __	1989. __. __	1974,1983

*출처 : 각정부 자료 및 UNCTAD, KOTRA 정리

○ 한국과 일본사이의 상호투자협정이 비교적 늦기는 했으나, 3국은 90년대 이후 상호투자를 위한 여건이 공고히 구축되어 있음

○ 또한 3국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의 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한국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CCPIT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	일본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총 세계 무역관수	74개국 105개 무역관	15개국 16개 무역관	56개국 74개 무역관
총 국내 무역관수	14개 지방 무역관	49개 지방분회 / 600여개의 지회	37개 지방 무역관
한중일 무역관수	중국 : 10개 무역관 설치 일본 : 4개 무역관 설치	한국 : 1개 무역관 설치 일본 : 1개 무역관 설치	한국 : 1개 무역관 설치 중국 : 6개 무역관 설치
주 업무	무역 / 투자유치 등	무역 업무에 중점	무역 / 투자유치 등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KOTRA 정리

○ 중국의 CCPIT의 경우에는 투자관련 업무가 주업무에 들어가지 않지만[58], 한국의 KOTRA 및 일본의 JETRO 등은 외국인투자유치 및 해외투자진출 지원을 위해 각 지방무역관과 해외무역관등을 통해 지원중임[59]

○삼국의 투자유치 지원 제도(세제등)은 아래와 같음

한국	중국	일본
1. 소득세 감면		
가. 외투기업 법인세, 소득세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R&D업종의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도 감면가능)을 영위하는 기업, 외국인투자지역(FIZ)내 입주 기업에 대해 - 상기 고도기술 및 외국인 투자지역(FIZ)은 2004년도 투자기업까지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감면을 2005년도 이후 투자기업부터는 수익창출년도(5년간 없으면 5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 고도기술 및 외투지역 이외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4년도 투자기업부터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을 실시함 - 이상에 대한 기산일은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임 - 이상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을 감면함	가. 기업소득세 ○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생산성 외투기업에 대해 수익창출년도부터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징수 1. 수출형기업 생산형기업내 연도의 수출제품의 생산액이 기업의 제품생산액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징수 후에도 50%의 세액을 징수, 단 이미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경제특구의 기업 등)는 10%의 세율이 적용 2. 선진기술기업 관할 세무당국의 인가를 받은 선진기술기업은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징수 적용후에도 여전히 선진기술기업인 경우 3년간 세율을 반감해서 징수 단, 이미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경제특구의 기업 등)는 10%의 세율이 적용 3. 경제특구의 서비스 기업 경제 특구에 설립된 서비스업	가. 기업소득세 *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해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세제제도가 있는 것은 아님 ○ 국내기업/외투기업 공히 사업개시 5년 이내의 결손금의 이월기간은 7년간 연장하도록 함 나. 채무보증 ○ 특정대내투자사업자(외자비율이 1/3 초과인 자회사이며, 설립 8년 내 기업 등의 조건충족필요) 의 경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10억엔의 차입금액을 채무보증받을 수가 있음 - 보증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 원칙 10년 이내(거치3년), 운전자금의 경우 5년이내(거치 3년) 등임 다. 융자제도 ○ 외국기업 및 외자계 기업은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할 수 있음

58) 중국의 경우 中國投資指南 이라는 조직을 상무부 산하에 구성하여 대중투자유입을 추진하고 있음

59) 한국 KOTRA의 경우, 1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명하면서,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 19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설, 2003년 Invest KOREA 발족등 투자유치노력 경주, 일본 JETRO의 경우는 2001년 코이즈미 총리의 '대일투자유치 배가계획'을 국회에서 발표함을 계기,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되었음

* 한국의 법인세율은 납세액이 1억원이하는 16% 1억원이 초과하면 27% ※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 WTO에 보조금 협정에 의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보조금 및 조세감면 불가 나. 증액투자 ○ 조세감면 업체가 증액하는 경우에 증액분에 대하여 동일한 적용을 함 다. 기타감면 ○ 조세감면 대상업체의 배당금에 대해 2004년 이전 투자기업은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적용, 2005년 이후 투자기업은 5년 100%, 2년 50% 감면함 ○ 기술도입대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투자가 5백만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기업은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징수가 적용 4. 금융기관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기타 장소에 설립된 외자은행, 중외국 합자경영은행으로 자본금(지점의 경우는 본점의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징수가 적용 5. 첨단기술기업 첨단산업개발구에 설립되는 첨단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제 조치가 적용 6. 인프라 관련기업 상해포동신구(上海浦東新區), 해남(海南)경제특구의 인프라 정비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5년간 면제, 이후 5년간 50% 징수이 적용 나. 재투자시 환급 ○ 등록자본 증액, 신규기업투자시 이미 납부한 소득세 40% 환급	- 대일억세스촉진사업(외자1/3 이상인 기업이 일본에서 전개하는 사업으로 대일투자기술 노하우등으로 인해 일본산업 고도화, 산업창출, 고용증가에 공헌하는 사업) 의 경우 정책금리II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 이상임 -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인터내셔널 스쿨 등 대일투자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학교등 외국어 교육기관) 의 경우 정책금리 II를 적용하며 융자비율 50% 임
2. 관세 및 증치세 감면		
가.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국인 투자지역(FIZ) 입주기업의 경우	가. 수입관련 諸稅 ○ 외투산업목록의 장려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증치세 면제	가. 세액 공제 * 일본은 대일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혜택이 특별히 존재하지 아니함

- 외국인이 직접 현물로 출자하는 자본재와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취득하는 자본재로서 외국인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고된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100% 면제 -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신청하며, 감면사업에 직접사용하여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완료해야 함 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감면 ○ 조세감면 대상업체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와 유사하게 감면하나, 조례에 의거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나. 수출관세 ○ 외투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시 수출제한품목, 국가가 별도 규정한 품목외에는 수출관세 면제 다. 도시보호 건설세 ○ 외투기업 면세 라. 토지점용세 ○ 외투기업 면세	
■ 지역별 우대		
1. 외국인투자지역 ○ 상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지원 2. 수출자유지역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일 3. 관세자유지역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동일	1. 경제특구 - 深圳, 珠海, 汕頭, 廈門, 海南 2. 연해개방도시 - 대련, 천진 등 3. 연해경제개방구 - 珠江, 華南, 長江텔타, 山東, 遼東반도 4. 경제기술개발구 - 북경, 상해, 대련, 천진 5. 변경대외개방도시 - 北方, 西南, 東方국경도시 6. 沿江개방도시 - 주요 하천 인근 도시 7. 내륙개방도시 - 중서부 18개 省의 省都	1. 13政令指定都市 대일투자유치의 역점을 두는 중점도시를 지정 운영중 -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카와사키, 키타큐슈, 코베, 쿄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등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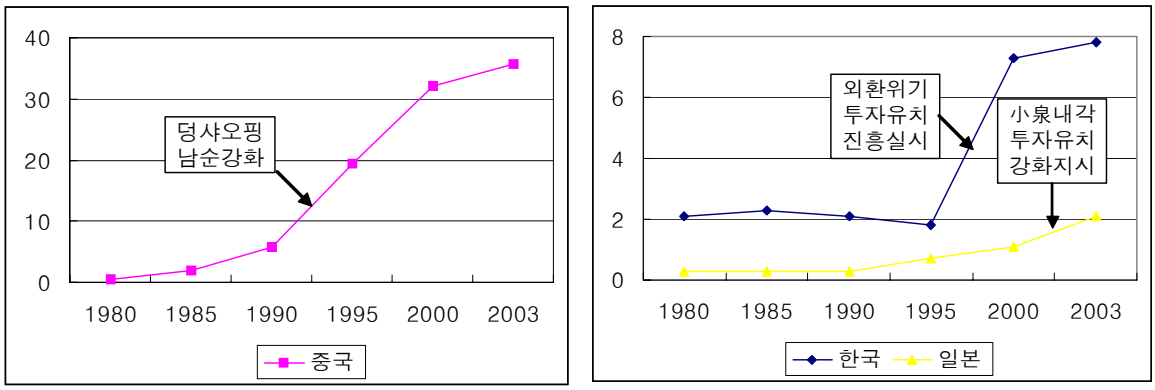
*출처 : KOTRA 및 JETRO 투자관련 정보 취합

○ 삼국의 투자유치 지원 제도를 보면, 세제상으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이 가장 낮은 인센티브를 제공중임

4. 결 언

○ 한중일 3국은 각국의 FDI를 통해 개방화, 글로벌화를 진행시켜 왔음

<그림21 각국 GDP중 FDI 유입총액의 비중 변화>



* 출처 : UNCTAD 2004, 단위: %

○ 중국의 경우 1992년 덩샤오핑의 중국 남부지방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강연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한 편, 해외투자유입도 이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 FDI의 증가는 개혁 개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외환의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접투자유치를 장려했으며, 각종 제도를 고치고 국제기준에 맞추는 한 편,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힘을 써 옴. 그 결과 98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은 투자유치를 달성한 바 있음.

○ 일본은 구미 선진국에서의 직접투자가 GDP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인 것에 비해서 선진국 중에서는 투자유치가 저조한 나라에 속해 왔었지만, 코이즈미 수상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JETRO의 Invest Japan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시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앞으로도 3국은 대세계 및 상호 직접투자진출등을 통하여 협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FDI의 진행상황및 향방은 동북아 3국의 경제지도를 그려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짐

○ 동북아3국의 FDI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나가야 할 부분임